

석독구결의 연구와 자료 공유

장경준(고려대)

1. 머리말

석독구결의 연구는 원 자료를 관찰하여 한문에 덧붙여진 토(吐)를 판독해 내는 데에서 시작한다. 자토구결의 토는 구결자와 부호(역독점, 교정부호 등)로 구성되고, 점토구결의 토는 구결점과 부호(역독선, 지시선 등)로 구성된다. 따라서 판독 작업의 핵심은 기입된 구결자, 구결점의 정체성(identity) 혹은 상대적인 가치(value)를 확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연구가 진전되면서 위에 밑줄 그은 부분이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새로운 영인 자료를 확보하여 전에는 보지 못한 존재를 새로 발견하거나 전에 본 존재의 모양을 달리 파악하게 된 사례가 많지만, 기존 영인 자료의 재분석을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따라서 석독구결 자료의 판독은 꾸준히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진전된 자료 해독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석독구결 연구를 초기부터 꾸준히 해 온 연구자는 업데이트된 최신 판독안을 바탕으로 연구를 할 수 있지만, 잠시 한눈을 팔거나 새로 연구를 시작한 연구자들은 자신이 가진 판독안에 대한 믿음이 열어질 수밖에 없고, 시간이 흐를수록 개별 연구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도 점점 어려워진다. 연구자들이 기반으로 삼는 판독안에 차이가 생기면서 그렇지 않아도 높은 연구 진입 장벽이 더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 석독구결 자료의 판독안은 연구의 기초 자료로서 객관적으로 기록되고 업데이트되어 연구자들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 다행스럽게도 그동안 구결학회를 중심으로 석독구결 자료 대부분이 공유되어 왔고, 특히 점토석독구결의 경우 자료를 공동으로 조사하고 잠정 판독 및 해독안을 함께 작성하는 훌륭한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미 공유된 판독안에 대한 수정은 연구자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최신 판독안을 공유하고 업데이트하는 시스템이 절실한 실정이기도 하다.

본 발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석독구결 자료 공유의 노력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로 준비한 것이다. 먼저 2장에서 판독 결과가 바뀐 몇 사례를 통해 영인 자료의 확보와 그 이미지 확인의 중요성을 환기한 다음, 3장과 4장에서 각각 자토석독구결과 점토석독구결 자료의 공유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2. 구결자, 구결점의 판독안이 달라진 사례

<사례 1>

이 사례는 <유가사지론> 권20의 자토석독구결에서 연구자들이 ‘ッロ尸丁イ尸’로 판독하던 것인데, 2012년 여름 오민석, 문현수 님이 기존 판독안에 의문을 제기하고 ‘ッ𪛗尸ッ尸’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고, 그 수정안이 sktot_2013_07에 반영되어 지금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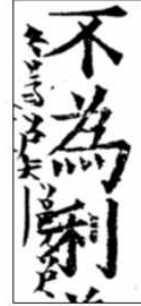
(03) 漢文: 不爲引他令信於己, 不爲利養恭敬稱譽.

字釋: 他乙 引ㄴ ㄴ (於)己ㄴ乙 信ㄴ(令)ㄴ(爲)人ㄴ尸 不ㄴㄴㄴ

利養ㄴ 恭敬ㄴ 稱譽ㄴノ尸乙 爲ㄴ色人ㄴ尸 不
ㄴㄴㄴㄴ尸矢!

解釋: 他를 引하여 자기를 信하게 하고자 하지 않고
利養이니 恭敬이니 稱譽이니 하는 것을 爲하
고자 하지 않고 하는 것이다.

〈유가20, 04:18-19〉



(04) 漢文: 若說法師, 爲此義故, 宣說正法.

字釋: 若 說法師ㄴ 此 義乙 爲ㄴ色人ㄴ尸入ㄴ 故ノ
正法乙 宣說ㄴトㄴ乙

解釋: 혹 說法師가 이 義를 爲하고자 하는 까닭으로
正法 宣說하는 것을/하거늘

〈유가20, 05:21〉



비교적 출현빈도가 높은 첫 번째 유형과 달리 두 번째 유형은 자토석
독구결에서 (02), (03), (04)에서밖에 출현하지 않는다. 특히 (03)은 南
豐鉉(1998), 김성주(2005a), 안대현(2009) 등에서 ‘爲ㄴ口尸ㄴㄴ尸’로 판독
하였던 예인데, (04)와 비교해 보면 ‘爲ㄴ色人ㄴ尸’로 판독하는 것이 옳
음을 알 수 있다.⁵⁾ 즉 이 두 번째 유형은 지금까지 판독의 잘못과 관련
용례의 부족으로 인해 그 공통성을 포착하기 힘들었던 것이다.

5) 이에 대해서는 2012년 여름 경 고려대학교에서 있었던 석독구결 연구모임
에서 오민석 선생이 기존 판독의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필자가 ‘ㄴ色人ㄴ
尸’로 판독할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이상 문현수(2014: 256-257)에서 전재함)

<사례 2>¹⁾

아래 (가)는 호림본 《유가사지론》 권3의 사진 영인본과 김영옥 이점본을 토대로 연구 모임에
서 공동 작성한 판독 및 해독안이고, (나)는 사진 영인본 제작 시 추가로 촬영한 사진을 참고하여
필자가 수정한 판독 및 해독안이다. 어느 사진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판독안(A)이 전혀 달라지고,
또 그에 따라 해독안(C)도 자동적으로 달라졌다.

(가)

A: 是故[43(·)?]極微[33(·)?]非[역독선]有分[33(·).33~43(·).구결자(ㄴ)] <유가3, 02:10>

1) <사례 2>의 내용은 장경준(2009: 254-255)에서 전재한 것이다.

B: 是故[ㄴ]極微[1]非有分[1, ㄴ 1]

C: 是 故 ㄴ 極微 1 分 有(ㄴ) 1 非 ㄴ 1

D: 그러므로 極微는 分 있는 것이 아니다.

E1: 그러므로 극미에는 세분함이 있는 것이 아니다.

E2: 극미는 방분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나)

A: 是故[43(·)]極微[33(·)?]非[역독선]有分[22~23(·), 33(·), 33~43(·), 53(·), 구결자(印)] <유가3, 02:10>

B: 是故[ㄴ]極微[1]非有分[+, 1, ㄴ 1, -]

C: 是 故 ㄴ 極微 1 分 {有} + 1 非 ㄴ 1 -

D: 그러므로 極微는 分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림 10] <유가3, 210>의
김영옥 이점본



[그림 11] 같은 부분의 사진1



[그림 12] 같은 부분의 사진2

[그림 10, 11]은 공동 연구에서 이용한 이점본과 사진이고 [그림 12]는 필자가 수정할 때 추가로 이용한 사진이다.²⁾ [그림 10]의 이점본과 [그림 11]의 사진에서는 보이지 않던 '分'자의 22~23(·),

2) 추가로 이용한 사진은 종이를 펼쳤을 때 훼손된 부분이 위로 말려 올라가 그림자가 지는 곳 위에다 무반사 유리를 얹어 눌러서 고정시켜 놓고 촬영한 것이다. 이 사진 파일은 공동 판독안 작성 당시에도 보급되어 있었으나 미처 활용하지 못하였다.

53(·)이 [그림 12]에서는 뚜렷이 보인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각필로 기입한 점토구결 자료는 같은 부분이라도 조건에 따라 달리 보일 수 있으며, 따라서 정밀한 사진 영인본도 가능한 한 여러 번 만들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례 3>

다음 사례는 <유가사지론> 권66 점토석독구결에 대한 공동 연구 결과물인 권인한 외(2018)에서 사진 영인본을 통해 ‘熟’자의 11위치에 기입된 구결점의 형태를 수직쌍점으로 판단하고 판독안에 11(:)로 기록한 것인데, 이강혁(2022)에서 새로운 사진 자료를 확보하여 이것이 역사선을 포함한 눈썹 형태임을 확인하고 판독안을 11(\)로 수정한 경우다. 이 예는 그동안 유가계통 자료에서 11(:)의 유일례로 알려진 것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직쌍점의 점도에서 11 위치를 지우게 만드는 중요한 수정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장경준(2018: 99, 2020: 19)에서 제시된 11(:)은 《유가사지론》 권66에만 등장하는 용례로서 ‘x ɿ’로 해독되었다. 해당 용례로 판독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총 1개가 확인된다.



[그림1]
유가66 熟08:15



[그림2]
유가66 熟08:15

[그림1]과 [그림2]는 같은 부분을 조명을 달리하여 촬영한 사진이다.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림1]에서는 11(:)으로 판독되지만 [그림2]를 참고하면 해당 용례는 11(\)으로 판독되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¹³⁾ 따라서 기존에 11(:)로 판독한 용례는 본고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이상 이강혁(2022: 278-279)에서 전재함)

3. 자토석독구결 자료의 공유

자토석독구결 자료는 1990년대 초반부터 전산 입력 자료의 형태로 비공식적으로 공유되다 1998년 <구결연구> 3집에 4종의 자료가 공간되었고, 2004년 2월 ‘sktot’ 시리즈가 처음 배포된 이후 수정 보완을 거듭하여 왔다. 장경준(2011)에서 ‘앞으로의 개선 방향’으로 언급한 ‘구결문의 형태주석 말뭉치 구축’, ‘한문 원문과 현대 번역본 추가’, ‘영인본 이미지의 연결 작업’은 부족하나마 sktot_2013_07, sktot_2019_01, sktot_2022_09, KOHICO(오민석 님이 관리하는 한국어 역사 자료 말뭉치, <http://kohico.kr/start>) 등을 통해 점차 실현되고 있다.

학계 차원에서 형식의 통일을 기하여 공개한 자료는 <구결연구> 3집(1998)에 실린 전산 입력본이 처음이다. 이것은 남풍현, 이승재, 정재영 님 등이 <화엄경소> 권35를 제외한 4종의 자료를 나누어 맡아 각각 전산 입력본을 작성, 교정하고 어학적 주석과 추정 독음을 제시한 것으로서 1990년대의 석독구결 연구 성과가 집약되었고, 이전의 자료에 비해 통일성이 개선되고 입력 오류가 많이 줄었다. 하지만 입력과 교정에 관한 상세한 공통의 지침 없이 이루어져 여전히 연구자의 개인적인 특징이 드러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5종의 석독구결 자료 전체를 일정한 원칙을 세워 일관되게 입력, 교정하고 공개한 최초의 자료는 sktot_2004_02이다. 이것은 원래 박진호 님이 5종의 입력 자료를 하나로 모아 형식을 통일해 놓은 'sktot'라는 이름의 파일에다가 장경준이 <유가사지론> 권20 부분만 자신의 입력 자료로 대치하고 '일러두기'를 추가한 다음 수 차례에 걸쳐 교정한 것이다(수정본의 발표일을 이름에 덧붙임). 이것은 이후 수정을 거듭하여 sktot_2007_01까지 발표하고 중단하였다.⁴⁾ 이 sktot 시리즈의 특징은 입력 원칙을 매뉴얼화하여 표준화를 시도한 점과 새 버전을 공개할 때마다 직전 버전에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수정했는지 밝힌 점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이전의 입력 자료들에 비해 객관화, 정밀화, 표준화라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것이지만, 특히 원본 자료에 내재한 오류의 교감을 하지 않은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⁵⁾

다음으로 석독구결 사전을 만들면서 기존 자료를 가공하고 수정하여 공개한 전산 입력본이 있다. 이것은 sktot_2004_11을 바탕으로 2005년 9~10월에 박진호, 이용, 장경준, 황선엽 님이 자료를 나누어 맡아 각각 사전 원고 작성에 적합하게 단락을 세분하고 겹문장의 문장 구조를 대괄호로 표시하는 등의 가공을 거친 다음, 2009년 8월에 사전이 나올 때까지 원고를

4) sktot의 개정을 중단한 이유는 석독구결 사전팀에서 입력 자료의 수정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5) sktot_2004_02는 자료 원본의 '명백한 오류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교정한다'는 태도로 교감 작업을 일부 행했다가 이후의 수정본에서는 '원본에 충실하게 입력한다'는 태도를 취하여 이전에 교감했던 것을 다시 원본에 보이는 대로 되돌렸다.

검토하면서 수시로 수정한 것이다.⁶⁾ 이 자료는 여러 연구자가 모여 미심쩍은 부분은 영인본을 확인하면서 입력 자료를 검토함으로써 매우 정교한 수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사전의 원고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라는 기본적인 성격과 더불어 여러 사람이 작업에 관여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오류 및 일관성의 부족, 교감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의 측면에서 보완의 여지를 안고 있다.

이후에는 장경준이 입력 자료의 보완 작업을 재개하여 2010년 7월에 sktot_2010_07을 공개하였다.⁷⁾ 이것은 기존의 입력 자료 3종(<구결연구>3집의 입력본, sktot_2007_01, 구결사전팀 수정본)과 영인본을 모두 대조하여 차이가 나는 부분을 검토한 다음,⁸⁾ 입력 자료를 '원본'과 '교감본'으로 이원화한 것이다. 이 자료에서는 그동안 만들어진 대표적인 입력 자료들의 구결자 판독 결과까지 대조하여 정확성을 높인 것과 교감의 근거를 밝힌 목록을 첨부한 교감본을 별도로 작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2011년 2월에 정밀한 검토를 거친 수정본(sktot_2011_02)으로 대체되었다.⁹⁾

현재 알려져 있는 최신의 입력 자료는 2011년 8월 30일에 공개한 sktot_2011_08이다.¹⁰⁾ 이것은 sktot_2011_02를 바탕으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검토한 수정본으로서 원본의 경우 ‘한문 원문과 구결자의 판독 결과에 대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텍스트’를 확보하고, 교감본의 경우 ‘원본에서 불분명한 부분은 명시적으로 판정하고 잘못된 부분은 올바르게 교정하여 석독구결 연구자들이 대체로 동의할 수 있는 정보 텍스트’를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자료가 목표에 얼마나 근접

- 6) 석독구결 사전 원고를 집필하고 입력 자료를 수정하는 데 참여한 연구자는 김성주, 서민욱, 서형국, 박진호, 이용, 이진경, 이지영, 장경준, 하귀녀, 황선엽님이다. 이 사전 편찬의 전반적인 경과에 대해서는 황선엽님이 집필한 사전의 서문을 참조할 수 있다.
- 7) 2009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았다.
- 8) 이 검토 작업에 유민호, 이효운님이 참여하였다.
- 9) sktot_2011_02의 준비 과정에는 김미미, 문현수, 신용철, 오민석, 오세문, 유근선, 이승희, 이효운, 전승민, 허인영님이 참여하였다.
- 10) sktot_2011_08의 준비 과정에는 김미미, 김지오, 문현수, 신용철, 오민석, 오세문, 이효운, 전승민, 허인영님이 참여하였다.

다음으로 현재의 ‘원본’과 ‘교감본’에 더하여 ‘한문 원문’과 ‘현대어 번역본’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구결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문 원문과 구결문을 나란히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하고, 구결문이 현대어로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대한 정보도 연구자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지식이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한문 원문의 제시는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으나 현대어 번역문의 제시는 매우 까다로운 작업이다. 우선 구결이 달린 원문 텍스트의 내용을 잘 알아야 하고, 석독구결의 표기법과 문법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하며, 번역문을 작성하는 연구자의 언어 감각과 주관적인 판단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석독구결의 현대어 번역문에는 그것을 제시한 연구자의 역량이 그대로 드러난다. 필자가 이 작업을 조금씩 진행해 오고 있는데 언제 공개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그 밖에 구결문의 형태주석 말뭉치의 구축과 영인본 이미지의 연결 작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장경준(2007)에 제시된 <유가사지론> 권20의 형태주석 말뭉치를 보완하여 석독구결 자료 전체로 확장하면 문헌별 현토양상의 파악이나 문법 정보에 대한 정밀한 분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영인본의 이미지를 구결문의 입력 단위로 자른 다음 서로를 연결시켜 연구자가 필요할 때 손쉽게 원본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획기적이고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앞으로 sktot의 확장판에서 시도해 볼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현재 우리가 당면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유니코드에 구결자 관련 부분이 정식으로 포함되도록 하는 일이다. 현재 구결자 코드는 유니코드의 사용자 영역에 임시 방편으로 들어가 있는데,¹²⁾ 앞으로 구결자 코드가 유니코드에 안정적으로 반영된다면 석독구결의 전산 입력 자료도 그에 맞추어 수정, 보완해야 할 작업은 물론이다.

(이상 장경준(2011: 305-306, 322)에서 전재함)

2. 석독구결 주석말뭉치의 구축

석독구결 자료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사용된 구결자 하나하나마다 어느 문헌에서, 어떤 (통사론적 혹은 음운론적) 환경에서, 어떤 기능으로 몇 번이나 쓰였는지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조사를 체계적으로 하는 데에는 구결자 각각에 필요한 분석 표지, 곧 태그(tag)를 달아 주석말뭉치(annotated corpus)를 만들어 전산 처리를 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다.

이 방법의 선행 연구로는 장경준(2007)에서 『유가사지론』 권20에 대해 주석말뭉치를 구축하고 연구에 활용한 것이 유일한 사례이다. 따라서 장경준(2007)에서 구축한 주석말뭉치를 검토하여 보완하고 나머지 네 자료에 대해서도 일관된 방식을 적용해서 석독구결 자료 전체를 망라하는 주석말뭉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필요에 의해 만든 결과물을 ‘sktot_2013_07’에 포함시키는 형태로 공개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직전 버전인 ‘sktot_2011_08’이 ‘원본(A)’과 ‘교감본(B)’으로 구성되어 있던 것에 더하여 ‘sktot_2013_07’에서는 수정된 ‘원본(A), 교감본(B)’에⁵⁾ ‘주석본(C)’이 추가되었다. 여기서는 이번에 추가된

- 4) 필자가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받은 연구는 ‘고려시대 석독구결 자료의 정본 확정 및 문헌별 차이에 관한 연구’라는 이름의 2년 과제(2009. 7~2011. 6)였다. 1차년도에 석독구결 자료의 교감 작업을 완료하고, 2차년도에는 그것에 기반한 주석말뭉치를 구축하여 문헌별 차이를 정밀하게 기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었다. 그러나 실제 연구 과정에서 석독구결 자료의 교감 작업에만 2년이 넘게 걸렸고, 그 결과물이 ‘sktot_2011_08’ 및 장경준(2011)로 발표가 되었다. 결국 2차년도에 계획했던 주석말뭉치의 구축 작업은 연구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시작하여 당시 연구보조원이었던 오세문, 허인영 군의 도움으로 겨우 완성하여 최종 보고서에 실을 수 있었다. 이후 보완 작업을 거쳐 이번에 공개하게 된 것인데, 보완 작업에 다시 한 번 허인영 군의 노고가 있었음을 밝혀 고마움을 표한다. 그리고 이 글도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은 2년 과제는 연구 논문을 2편 이상 제출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한 것임을 밝힌다.

이 연구에서 구축한 주석말뭉치의 바탕 자료는 5종의 석독구결 자료의 텍스트를 교감한 ‘sktot_2013_07’의 ‘교감본(B)’이다. 이 교감본 텍스트에는 모두 28,109개의 구결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각 구결자의 문헌별 사용 빈도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번호	자형	추정독음	<화소>	<화업>	<구인>	<금광>	<유가>	총계
1	ハ	ㄱ/기	77	74	43	36	161	391
2	甲	?(갑)	1	0	0	0	0	1

76종 28,109개의 구결자들에 대한 기능별 분류와 검토를 위하여 이 연

구에서는 각 구결자마다 그것의 사용 환경을 아홉 가지의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 표지인 태그(tag)를 달았다. 이 때 분석 표지의 체계와 표시 방법은 선행 연구인 장경준(2007)의 사례를 따랐다. 곧, 각 구결자와 거기 딸린 분석 표지들은 구결자가 현토된 한자의 오른쪽에 ‘[]’ 안에 순서대로 배치되되 각각은 ‘,’로 끝을 맺어 구분하였고, 분석 표지 체계는 다음 [표 2]의 것을 사용하였다.⁶⁾

분석 표지	분석 표지의 지시 내용	구체 사례	
V	용언어간	분석 전	因 爲 ㄴ ㄱ
		분석 후	因 爲 [ㄴ V, ㄴ V, ㄱ Ec,]
Ep	선어말어미	분석 전	出世 ㄴ ㄱ ㄴ ㄱ 諸緣生法 ㄴ ㄱ ㄴ ㄱ
		분석 후	出世 [ㄴ V, ㄴ Ep, ㄴ Ep, ㄴ Et, ㄴ N, ㄴ J,] 諸緣生法 [ㄴ J, ㄴ V+Ep, ㄴ Et, ㄴ J,]
Ec	연결어미	분석 전	得 ㄱ ㄴ ㄱ
		분석 후	得 [ㄱ Ec, ㄴ V, ㄴ Ec,]
Ef	종결어미	분석 전	二種 有 ㄴ ㄱ
		분석 후	二種 有 [ㄴ V, ㄴ Ef,]
Et	전성어미	분석 전	住處障 ㄴ ㄱ ㄴ ㄱ ㄴ ㄱ
		분석 후	住處障 [ㄴ V, ㄴ Ef, ㄴ V, ㄴ Et, ㄴ N, ㄴ J,]
N	체언	분석 전	已 ㄴ ㄱ
		분석 후	已 [ㄴ N, ㄴ J,]
J	조사	분석 전	{於} 今生 ㄴ ㄱ 中 ㄴ ㄱ +
		분석 후	{於} 今生 [ㄴ J,] 中 [ㄴ J, ㄴ J,]
M	수식언	분석 전	他 ㄴ ㄱ 從 ㄴ ㄱ
		분석 후	他 [ㄴ J,] 從 [ㄴ M,]
R	판단 보류/기타	분석 전	乃 ㄴ ㄱ 至 ㄴ ㄱ
		분석 후	乃 [ㄴ R,] 至 [ㄴ M,]

[표 2] 구결자의 분석 표지 체계(tag set)

V 용언어간 Ep 선어말어미 Ec 연결어미 Ef 종결어미 Et 전성어미
N 체언 J 조사 M 수식언(부사/관형사) R 판단 보류/기타
+ 하나의 구결자가 두 형태의 복합으로 분석되는 경우
- 둘 이상의 구결자가 하나의 형태에 대응되는 경우

이상의 분석 표지 체계는 연구 목적에 따라 좀 더 정밀하게 세분하여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7) 그러나 여기서는 정밀한 범주 구분과 형태소
분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석독구결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크게 9개
의 범주로 나누어 표시하는 방식을 따랐다.

7) 예컨대 선어말어미(Ep)로 묶인 범주를 시제/존대/서법 등의 하위 범주로 나누거나 연
결어미(Ec)로 묶인 범주를 순접/역접/이접 등의 하위 범주로 나누어 태깅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상 장경준(2013: 169-174)에서 전재함)

<sktot_2015_07의 수정 사항>

(sktot_2015_07의 수정 작업은 <유가사지론>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고려대 석독구결 강독모임 참여자들
이 기여하였다.)

1. 구결자 판독 및 교감 수정

(5건, 내용 생략)
2. 구결문 어순 조정

(1건, 내용 생략)
3. 띄어쓰기 수정

(5건, 내용 생략)
4. 단락 위치 및 단락 나누기 수정

(4건, 내용 생략)
5. 교감기 수정

(2건, 내용 생략)

6. 구결문 기호 수정 (2건, 내용 생략)

<sktot_2019_01의 수정 사항>

(sktot_2019_01의 수정 작업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문현수, 김성주, 이용 님이 기존 자료의 판독 오류를 제보하였고, <자비>의 텍스트는 하정수, 문현수, 허인영, 이병기 님의 구결학회 강독 자료(합본)를 바탕으로 수정하고 교감하였다. 또한 새로 추가한 현대 한국어 번역은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2013. 8.) 발표 자료 및 월례연구발표회 강독 자료와 이미 출판된 역주본의 내용 일부를 저자의 허락을 얻어 인용하였다.)

1. 판독 및 교감안 수정 (10건, 내용 생략) : 구결자 사용 빈도 통계에도 반영함.
2. 구결문 기호 수정 (1건, 내용 생략)
3. 단락나누기 수정 (6건, 내용 생략)
4. 원본(A)과 교감본(B)에 <자비도량참법>을 추가하였다.
5. 교감본(B)를 바탕으로 현대 한국어 번역을 추가한 (D)를 새로 작성하였다.
6. 이상을 반영하여 일러두기의 내용을 수정하고 <자비도량참법>의 교감기를 추가하였다.

<sktot_2022_09의 수정 사항>

(sktot_2022_09의 수정 작업은 <금광명경>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은 ‘중층적 구결 자료 <합부금광명경> 권3의 종합적 연구’의 공동연구 진행 과정에서 제기된 수정안을 바탕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였다. (강서현, 권인한, 김성주, 김지오, 문현수, 성우철, 안대현, 이강혁, 이용, 이용규, 장경준, 장윤희, 장지혜, 정태균, 최준호, 하정수, 허인영, 황선엽 님이 참여함.) 그 밖에 메모한 내용과 김지오 님이 제보해 주신 내용 등을 검토하여 반영하였다. 그리고 한문 원문, 석독구결문, 현대 한국어 번역문을 병렬한 ‘원문대조본’을 새로 만들어 추가하였다.)

1. 한문 원문의 판독 및 띄어쓰기 수정 (24건, 내용 생략)
2. 구결자의 판독 및 분석 수정 (34건, 내용 생략)
3. 교감기의 수정, 추가 및 삭제 (65건, 내용 생략) : 교감기의 일련번호도 수정하였음.
4. 구결자 판독의 수정 결과를 구결자 사용 빈도 통계에 반영하였다.
5. 부독자 표시 수정 (3건, 내용 생략)
6. 원본(A), 교감본(B), 주석본(C), 번역본(D) 모두 한자 ‘不’의 입력 코드를 유니코드 ‘F967’와 ‘4E0D’ 중에서 ‘F967’로 통일하였다.
7. 출전 표시 오류 수정 (1건, 내용 생략)
8. 단락 나누기 수정 (17건, 내용 생략)
9. 번역본(D)의 현대 한국어 번역을 일부 수정하였다. <금광>의 경우 공동연구 참여자들이 만든 2022년 역주 원고 초안을 검토하여 새로 반영하였다.
10. 번역본(D)을 바탕으로 한문 원문을 추가하고 석독구결문, 현대 한국어 번역문을 병렬한 원문대조본(E)를 새로 작성하였다.
11. 이상을 반영하여 일러두기의 내용을 수정하였다.

☞ <sktot_2022_09 다음 버전의 수정 사항 예고>

(2024년 12월 현재 준비하고 있는 수정 작업은 2023년 6월 24일 있었던 <금광명경> 원본 실사(김성주, 장경준) 및 기타 오류에 대한 수정 결과를 집중적으로 반영하였다.)

1. 한문 원문의 판독 및 띄어쓰기 수정

* <ABCDE유가01:23-02:01> (謂 於是處 有四)衆ヲ 行ノヲリト 謂ト 苾芻ニ 苾芻尼ニ 近事男ニ 近事女ニノス

-> (謂 於是處 四)衆ヲ 行ノヲリト 謂ト 苾芻ニ 苾芻尼ニ 近事男ニ 近事女ニノス (有)

2. 구결자의 판독 및 분석 수정

* <A금광02:01> (譬如寶須彌)山王[ヌ 白 ㄹ 세필]

-> <A금광02:01> (譬如寶須彌)山王[ヌ 白 ㄹ 세필 또는 ヌ 로 ㄹ 세필]

3. 교감기의 수정, 추가 및 삭제 (수정 전의 내용은 제시를 생략함)

* (수정)	IV-001	금광02:05	故(ㄴ?)	故ノ	자형 불명 ³⁾
* (수정)	IV-004	금광02:18	故(ㄴ?)	故	자형 불명, 판독 반영 안함 ⁴⁾
* (수정)	IV-005	금광02:19	(至)(ㄴ ㅅ ㅈ ㅊ ㅋ ㆁ?)	(至)ㄴ ㅅ ㅈ ㅊ ㅋ ㆁ	자형 불명 ⁵⁾
* (수정)	IV-030	금광05:21	解釋(ㄴ ㄹ?)	解釋ㄴ ㄹ	자형 불명 ⁶⁾
* (수정)	IV-032	금광05:23	菩薩地(ㄴ?) + ㅈ	菩薩地ㄴ + ㅈ	자형 불명 ⁷⁾
* (수정)	IV-033	금광05:24	前現ノ ㅈ (ㄴ?)	前現ノ ㅈ ㄴ	자형 불명 ⁸⁾
* (수정)	IV-038	금광06:06	圓滿ㄴ ㅅ ㅈ ㅊ ㅋ ㆁ (ㄴ?)	圓滿ㄴ ㅅ ㅈ ㅊ ㅋ ㆁ ㄴ	혼동 유발 필체: ㅅ를 ㅈ처럼, 자형 불명 ⁹⁾
* (수정)	IV-039	금광06:07	如(ㄴ ㅅ ㅈ ㅊ ㅋ ㆁ?)	如ㄴ ㅅ ㅈ ㅊ ㅋ ㆁ	원본 훼손 부분 ¹⁰⁾
* (수정)	IV-045	금광06:16	右邊(ㄴ ㅅ?) ㅈ +	右邊ㄴ ㅅ ㅈ +	원본 훼손 부분, 초기 복사본 판독 참조 ¹¹⁾
* (수정)	IV-046	금광06:16	臆(ㄴ?) +	臆ㄴ +	자형 불명 ¹²⁾
* (수정)	IV-054	금광06:25	慶樂(ㄴ ㅅ ㅈ ㅊ ㅋ ㆁ?)	慶樂ㄴ ㅅ ㅈ ㅊ ㅋ ㆁ	자형 불명 ¹³⁾
* (수정)	IV-059	금광07:10	是 地 (ㅈ?)	是 地 ㅈ	자형 불명 ¹⁴⁾
* (수정)	IV-063	금광07:15	能(ㄴ?)	能ㄴ	원본 훼손 부분, 초기 복사본 판독 참조 ¹⁵⁾
* (수정)	IV-072	금광07:24	相(ㅈ?)續ㄴ +	相續ㄴ +	원본 훼손 부분, 자형 불명 ¹⁶⁾

3) 이것이 구결자가 확실하다면 자형상으로는 오히려 ‘ㄴ’에 더 가까워 보인다. 그러나 ‘ノ’가 쓰일 환경임이 분명하고 희미하지만 ‘ノ’에 대응되는 점토도 있기 때문에 ‘ノ’로 교감하였다.

4) ‘故’자의 아래에 묵흔이 있으나 어떤 구결자의 자형으로 판독하기 어려워 교감안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만약 이것이 구결자가 맞다면 문맥상 ‘ㄴ’이 쓰일 환경이다.

5) 송진에 오염된 부분이어서 사진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원본 실사 결과 ‘ㄴ ㅅ ㅈ ㅊ ㅋ ㆁ’의 ‘ㅈ’이 자획의 마지막 부분만 보이고, 나머지 글자는 분명히 확인되었다.

6) 송진에 오염된 부분이어서 사진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원본 실사 결과 ‘ㄴ ㄹ’이 확인되어 ‘ㄴ ㄹ’로 판독하였다.

7) ‘ㄴ’의 아래 부분만 보이지만 충분히 ‘ㄴ’로 볼 수 있다. ‘二地ㄴ + ㅈ’(금광5:25)의 사례와 비슷함.

8) 송진에 오염된 부분이어서 사진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원본 실사 결과 ‘ㄴ ㅈ ㅊ ㅋ ㆁ’이 분명히 판독되었다.

9) 송진에 오염된 부분이어서 사진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원본 실사 결과 ‘ㄴ’이 분명히 판독되었다.

10) 송진에 오염된 부분이어서 사진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원본 실사 결과 ‘ㄴ ㅅ ㅈ ㅊ ㅋ ㆁ’이 분명히 판독되었다.

11) 송진에 오염되고 종이가 훼손되어 사진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원본 실사 결과 ‘ㄴ’은 분명히 보이고 ‘ノ’가 있을 자리는 훼손되어 자형 확인이 어려웠다. 여기서는 정재영(1998)에 ‘ㄴ ㅅ’로 판독된 것을 반영하였다.

12) 송진에 오염된 부분이어서 사진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원본 실사 결과 ‘ㄴ’이 분명히 판독되었다.

13) 송진에 오염된 부분이어서 사진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원본 실사 결과 ‘ㄴ ㅅ ㅈ ㅊ ㅋ ㆁ’이 분명히 판독되었다.

14) 송진에 오염된 부분이어서 사진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원본 실사 결과 자획이 끊어져 있으나 ‘ㅈ’으로 판독할 수 있다.

15) 송진에 오염되고 종이가 훼손되어 사진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원본 실사 결과 묵흔은 아래 멀리 떨어진 점 하나만 남아 있어 자형상 ‘ㄴ’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웠다. 여기서는 정재영(1998)에 ‘ㄴ’으로 판독된 것을 반영하였다.

16) 원본 실사 결과 구결자 ‘ㅈ’이 기입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相續’이 한 단어이어서 토가 달릴 자리가 아니고 같은 문장이 있는 (금광7:7)에도 ‘行法 相續ㄴ +’로만 현토된 점을 고려하여 교감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이것이 의미 있는 토가 맞다면 ‘法行’에 달아야 할 주격조사 ‘ㅈ’을 ‘相’에다 잘못 단 것일 가능성도 있다.

* (수정)	IV-079	금광08:08	爲リ尸(入乙?)ッ才四	{爲}リ尸入乙ッ才四	원본 훼손 부분, 초기 복사본 판독 참조 ¹⁷⁾
* (수정)	IV-083	금광08:13	五地(ゝ+?) 1	五地ゝ+ 1	자형 불명, 초기 복사본 판독 참조 ¹⁸⁾
* (수정)	IV-084	금광08:13	行向(ッか?)	行向ッか	자형 불명 ¹⁹⁾
* (수정)	IV-085	금광08:16	十地(ゝ+ 1?)	十地ゝ+ 1	자형 불명 ²⁰⁾
* (수정)	IV-089	금광09:25	惡獸(リ尸?)	惡獸リ尸	자형 불명 ²¹⁾

4. 구결자 판독의 수정 결과를 구결자 사용 빈도 통계에 반영하였다.

5. 부독자 표시 수정

* <BDE자비17:01-03> 一切 衆生、ノヲ 爲シテッヽ -> 一切 衆生、ノヲ {爲}シテッヽ

* <DE화소09:01-03> 諸 1 衆生ヲ 爲[三] -> 諸 1 衆生ヲ {爲}[三]

6. 현대 한국어 번역 수정

* <DE화엄03:16> 스님들께 귀의함으로부터 말미암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하기를 衆生은 大衆을 統理하되 一切의 막힘 없으소서 (할 것이며)

-> 스님들께 귀의함으로부터 말미암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하기를 衆生은 大衆을 統理하되 일절 막힘 없으소서 (할 것이며)

* <DE금광06:07-08> 寶女人 같은 이가 일체의 그 몸과 머리를 莊嚴함에 散多那華와 妙寶瓔珞으로 몸과 머리를 貫飾한 것을 보살은 다 볼 수 있다.

-> 寶女人 같은 이가 일절 그 몸과 머리를 莊嚴함에 散多那華와 妙寶瓔珞으로 몸과 머리를 貫飾한 것을 보살은 다 볼 수 있다.

* <DE금광13:24-14:01> 이 金光明微妙經典은 많은 경전의 王이며 하시기 때문이니,

-> 이 金光明微妙經典은 많은 경전의 王이며 하시기 때문이다.

7. 한문 원문의 글자 폰트 통일

*모든 파일에서 一切(5207)와 一切(FA00) 중에 一切(5207)로 통일함.

8. 이상을 반영하여 일러두기의 내용을 수정하였다.

☞ sktot_2004_02는 장경준이 2003년에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면서 기존 입력 자료에 오류가 많음을 발견하고 수정 작업을 한 결과물을 학계에 공유하고자 공개한 것이었고, 그 이후 여러 연구자들의 도움을 받아 20년 넘게 수정 보완하여 왔다. 그동안 한 사람의 연구자로서 더할 나위 없는 보람을 느꼈으며,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다.

17) 송진에 오염되고 훼손된 부분이어서 사진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원본 실사 결과 ‘入乙’에서 入의 오른쪽 획 목흔만 보이고 나머지 부분은 안 보였다. 여기서는 정재영(1998)의 판독안을 반영하였다.

18) 송진에 오염되고 훼손된 부분이어서 사진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원본 실사 결과 ‘ゝ+’는 보이지 않고 ‘1’만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는 정재영(1998)의 판독안을 반영하였다.

19) 송진에 오염되고 훼손된 부분이어서 사진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원본 실사 결과 ‘ッ’는 분명히 보이고 다음 구결자는 마지막 획만 보이거나 ‘か’로 인정할 수 있다.

20) 송진에 오염되고 훼손된 부분이어서 사진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원본 실사 결과 ‘+’는 분명히 보이고 다음 구결자는 마지막 부분만 획이 남아 있으나 ‘1’으로 인정할 수 있다.

21) 송진에 오염된 부분에 가깝고 종이가 뭉개진 곳으로 사진상으로는 ‘リ’와 ‘尸’의 자획 일부가 잘 보이지 않는다. 원본 실사 결과 ‘リ尸’이 분명히 판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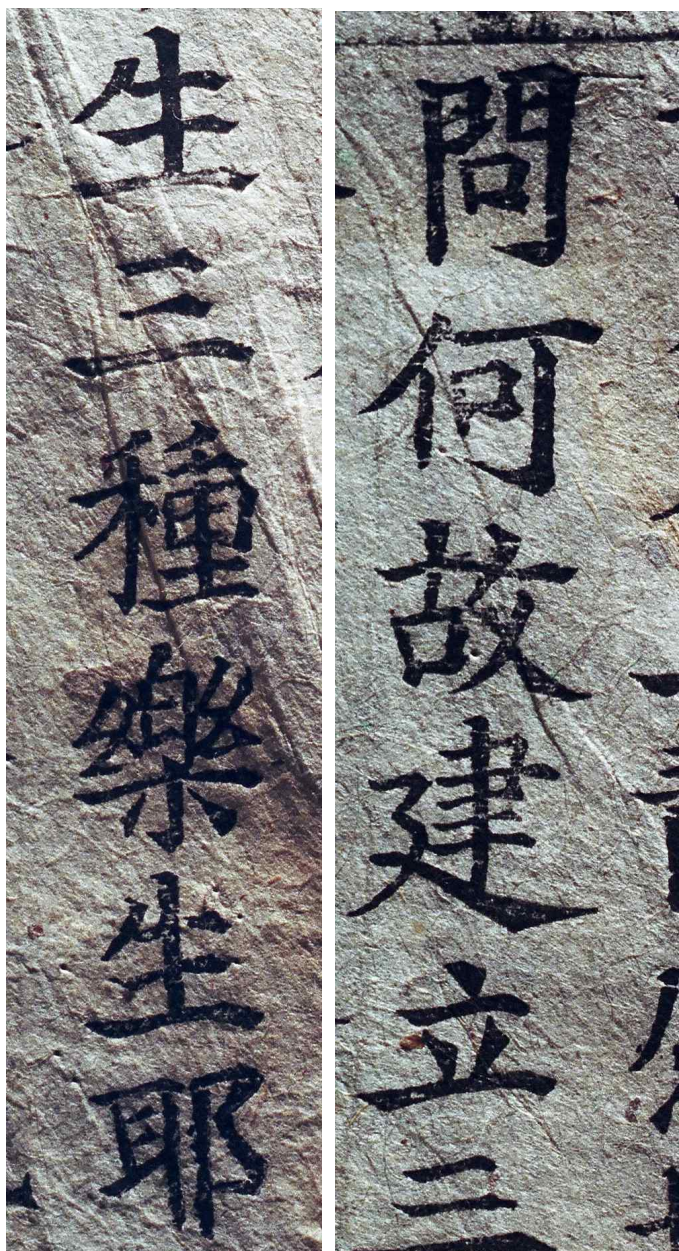
4. 점토석독구결 자료의 공유

점토석독구결 자료는 최초로 연구가 시작된 2000년 여름 이후 대부분의 자료가 공동 연구를 통해 판독안이 작성되고 공유되어 왔다. 초기의 판독안은 소수의 연구자가 원 자료를 직접 조사하여 눈에 보이는 것을 한문 원문을 인쇄한 종이 위에 색연필로 기록한 ‘이점본(移點本)’의 형태로 작성되었다.

그러나 각필구결 자료의 특성상 조명의 밝기와 각도, 조사자의 위치에 따라 판독 결과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이점본에 인쇄된 한자 자형이 원본의 자형과 일치하지 않아 구결점의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작성된 이점본도 일부만 학계에 공개되었다.

生 問
耶 何
(유5,8,12) 故
建立
三
種
欲
生
三
種
樂

이점본의 예
(남풍현(2000: 19)에서 인용함)



왼쪽 이점본 해당 부분의 영인 사진
(파일명 Yuga_05_08_05, Yuga_05_08_06에서 편집함)

대부분 각필로 기입된 점토석독구결 자료의 특성상 정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원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 있는 사진 영인 자료의 확보가 불가결하다. 다행히 2000년 11월 고바야시 요시노리 선생님께서 각필 자료 촬영 경험이 풍부한 일본인 사진기사와 함께 내한하셔서 정밀 촬영을 하였고, 그 필름 전체를 구결학회에 기증해 주셨다.

8월경 일본에서 고바야시 교수와 재회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저에게 각필 자료의 일부에 대한 사진 촬영 요청을 하였고, 나는 이것에 흔쾌히 승낙하였습니다. 자료의 移點과 해독 작업이 남풍현, 이승재, 윤행순 교수에 의해서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 11월 초경 사진 촬영차 고바야시 교수 일행이 다시 내한하였습니다.

7월초 3명에 비하면 이번에는 10명이 넘는 대 인원을 대동하고 내한하였습니다. 이 촬영작업을 위해서 고바야시 교수 부부와 함께 각필 발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구인 각필 스코프 고안자인 吉澤康和선생님(히로시마 대학 명예교수), 각필자료촬영 사진기사 1명, 니시무라 히로코 교수와 NHK 보도진(문화부 소속 이마이데쓰 기자, PD 마에다 고이찌, 카메라 맨 札内聰, 조명담당 2명, 기록 1명)이 왔고, 한국에서 임시로 채용된 조명기사 2명이 더 합류하였습니다.

또한 이때 우리들이 7월에 주문 제작한 4대의 각필 스코프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것은 고가품이기 때문에 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하였으

나, 고바야시 선생이 사비로 구입하여 선물하였습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한국의 각필 문헌 연구에 다대한 공헌을 하게 될 것임을 기약하면서, 그 후의를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조병순(2002: 8-9)에서 전재함)

이후 고바야시 선생님이 기증해 주신 사진과 구결학회에서 촬영한 사진 자료에 대해 회원들의 신청을 받아 2001년 7월에 사진첩으로 만들어 보급하였는데, 당시 사진값이 매우 고가여서 신청자가 많지 않았다.

◆ 研究委員會 活動

• 角筆口訣資料 갈라 寫眞 配布

신청 접수 마감 및 배포 : 7월 10일 마감, 7월 24일 배포.

신청자 : 김두찬, 남풍현, 박성종, 이승재, 김영옥, 장경준

내용 : 각필 구결 자료 5점(『瑜伽師地論』 권5와 권8 및 周本『華嚴經』 권6, 권22, 권57)의 사진 총 1,500여 장

(『구결연구』 7집(2001.8.) 휘보에서 인용함)

이후 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받아 실무를 진행하던 장경준이 당시 최신 장비를 갖추고 있던 연세대 학생회관 사진관에서 ‘사진 필름을 스캔하여 그림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다’는 직원의 이야기를 듣고, ‘컴퓨터 화면에서 그 이미지를 확대해서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필름 일부를 스캔하여 본 결과는 아주 놀라웠다. 그리하여 학회 임원진에 이 사실을 보고하고 모든 사진의 필름을 스캔한 다음, 그 이미지 파일에 이름을 붙이고 CD에 담아 학회 회원들에

게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기 시작하였다. (위에 소개한 자료 사진도 그 파일의 일부임.)

◆ 任員會議

- 일시 : 2002년 3월 30일(토) 14:00 ~ 15:00
 장소 : 대우학술재단 2층 커피숍
 내용 : 石塚 교수 4월 방문건, 유가사지론(권8) CD 판매가 협의
 참석 : 남풍현, 고정익, 박성종, 김주원, 윤행순, 이승재, 정재영, 김영
 옥, 권인한, 장윤희, 장경준, 박진호
- 일시 : 2002년 4월 27일(토) 14:00 ~ 15:00
 장소 : 대우학술재단 2층 커피숍
 내용 : 『구결연구』 8집 우송 현황 보고, 5월 월례강독회 진행건, 유가
 사지론(권5+8), 화엄문의요결 CD 판매가 협의
 참석 : 남풍현, 고정익, 박성종, 김주원, 윤행순, 정재영, 권인한, 장윤희,
 이용, 장경준, 박진호

(『구결연구』 9집(2002. 8.) 휘보에서 인용함)

각필구결 자료 영인본 이용 안내

그동안 주로 구결학회를 통해 보급(예정)된 각필구결 자료 이점본(移點本) 및 영인본(影印本)에 대해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지금까지 국내에서 조사, 보고된 각필구결 자료의 현황(총 12종)

- (1)성암고서박물관 소장본(7종) : <유가사지론> 권5, 권8, <주본 화엄경> 권6, 권22, 권36, 권57, <진본 화엄경> 권20
- (2)호림박물관 소장본(3종) : <유가사지론> 권3, <주본 화엄경> 권31, 권34
- (3)연세대 도서관 소장본(1종) : <법화경> 권1
- (4)수덕사 소장본(1종) : <법화경> 권7

(각 자료의 구체적인 서지 사항은 관련 논문을 참조하십시오)

2. 이점본의 형태로 보급(예정)된 자료

- (1)<유가사지론> 권5 및 권8의 이승재 이점본 - 2000년 11월 월례강독회에서 보급
- (2)<유가사지론> 권3의 김영옥 이점본 - 2001년 2월 제24회 공동연구회에서 보급
- (3)<유가사지론> 권3의 윤행순 이점본 - 2001년 2월 구결학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보급
- (4)성암 소장 <화엄경> 5종의 이점본(진본 권20/정재영, 주본 권6/남풍현, 권22/윤행순, 권36/김영옥, 권57/이승재)
 - 2002년 7월 학진 협동연구과제 중간보고서로 간행, 2004년 2월 최종보고서 출간 예정(연구논문 포함)
- (5)<유가사지론> 권5 및 권8의 정밀 이점본(연구모임 공동 작업) - 2004년 2월 학진보고서로 간행 예정(역주 포함)

3. 사진영인본의 CD본 형태로 보급(예정)된 것

- (1)<유가사지론> 권8의 사진을 편집, 스캐닝하여 저장한 CD본(1장) - 2002년 3월 월례강독회에서 보급
- (2)<유가사지론> 권5와 권8의 필름을 스캐닝하여 저장한 CD본(4장) - 2002년 5월 월례강독회에서 보급
- (3)<진본 화엄경> 권20과 <주본 화엄경> 권36의 필름을 스캐닝하여 저장한 CD본(3장) - 2002년 11월 월례강독회에서 보급
- (4)<주본 화엄경> 권6, 권22, 권57의 필름을 스캐닝하여 저장한 CD본(4장) - 2003년 12월 월례강독회에서 보급 예정

(그 밖에 일본에 있는 자료인 '화엄문의요결' 복제본을 스캐닝하여 저장한 CD본(1장)을 2002년 3월 월례강독회에서 보급하였음)

4. 2003년 12월 6일 월례강독회에서 보급 예정인 화엄경 3종 영인본 CD에 관하여

- (1) 이번에 보급하게 된 <주본 화엄경> 권6, 권22, 권57 영인본 CD는 모두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권을 정밀 촬영한 사진 자료가 1장씩이고 나머지 1장에는 성암 소장 자료 5종(<유가사지론> 권5, 권8, <주본 화엄경>

권6, 권22, 권57)의 서지확인용 촬영본과 기타 사진 자료가 들어 있다.

- (2) 파일 이름은 기존에 보급한 <유가사지론> 2종 및 <화엄경> 2종과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부여하였다. 파일 이름 안에 서지 사항을 반영하여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컨대 “hwa_u06_01_01.JPG”는 ‘화엄경_주본 권6_제1장_첫번째 부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hwa_u57_10_10.JPG”는 ‘화엄경_주본 권57_제10장_열번째 부분’이라는 것을 뜻한다.(한 행을 위, 아래로 나누어 촬영하였으므로 장차 표시 다음의 숫자가 홀수이면 윗부분을, 짝수이면 아랫부분을 찍은 것이 해당된다) 또한 “hwa_i20_15_07_1.JPG”는 ‘화엄경_진본 권20_제15장_일곱번째 부분_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것’이라는 정보를 표시한다. 또한 서지확인용으로 촬영한 사진 파일들은 파일 이름에 ‘macro’를 추가하였고 기타 사진들도 다른 방식으로 이름을 붙여 구분하였다.
- (3) 2002년 5월 보급한 <유가사지론> 권5 및 권8의 영인본 CD에 포함된 파일 중 문제가 있었던 “Yuga_05_17_05.JPG” 부분을 새로 작업하여 ‘서지확인용’ CD의 ‘기타’ 폴더에 포함시켰다.

각필구결 자료를 정밀히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 자료를 정밀 촬영한 사진본 및 영인본 CD를 보급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성암고서박물관에 소장된 7종의 자료를 정밀 촬영한 영인본 CD를 모두 갖추게 된 것은 이 방면의 연구자에게는 커다란 경사라 할 수 있습니다. 영인본 CD를 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성암 선생님을 비롯하여 그동안 애써주신 여러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나머지 자료의 정밀 사진 촬영도 이루어져 본격적인 연구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고대하는 바입니다.

(2003년 11월 30일에 작성한 안내문 전문: 작성자 장경준)

이렇게 고해상도 사진 자료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단기간에 구축되고, 원 자료의 모습을 컴퓨터로 확대하여 관찰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점토석독구결의 연구 환경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점본과 사진만으로 점토구결을 연구하기는 쉽지 않았다. 선행 연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점토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같은 환경에서 일정하게 현토되는, 다시 말해 현토 양상이 예측 가능한 구결점들을 찾아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이점본과 사진의 이미지를 머리로 기억하고 손으로 메모하여 요령 있게 정리하는 일은 종종 커다란 희열을 맛보기도 하지만 대체로 매우 지루하고 고된 작업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눈에 보이는 점토를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검색이 가능한 전산 입력 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연구 초기부터 여러 연구자에 의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출되었는데, 2003년 1월 7일 열린 회의에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졌다. 당시 회의에 제출된 자료와 회의록은 본고의 [붙임1]에 수록하였고, 여기서 결정된 내용이 지금까지 점토석독구결 자료의 판독 및 해독안을 작성하는 기본 매뉴얼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을 해설하여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이 장경준(2003)임.)

현재까지 학계에 알려진 고려시대 점토석독구결 자료는 총 16종이 있는데, 이에 대한 발견(공개) 시기, 소장처에 대한 정보를 비롯하여 사진본 확보, 이점본 작성, 전산화 완료, 해독안 출판 여부에 대해 정리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번호	자료명	발견(공개)	소장처	사진본 확보	이점본 작성	전산화 완료	해독안 출판	비고
1	瑜伽師地論 卷3	2000년 10월	호림박물관	○	○	○	×	『유가사지론』 계통
2	瑜伽師地論 卷5	2000년 7월	성암고서박물관	○	○	○	○	『유가사지론』 계통
3	瑜伽師地論 卷8	2000년 7월	성암고서박물관	○	○	○	○	『유가사지론』 계통
4	瑜伽師地論	2005년 8월	日本 南禪寺	△	×	○	×	『유가사지론』

	卷8							계통
5	瑜伽師地論 卷53	2011년 11월	가천박물관	△	×	×	×	『유가사지론』 계통
6	瑜伽師地論 卷61	2018년 11월	개인	△	×	×	×	『유가사지론』 계통
7	瑜伽師地論 卷66	2017년 2월	국립한글박물관	○	○	○	△	『유가사지론』 계통
8	合部金光明經 卷3	2004년 4월	청주고인쇄박물관	△	○	○	×	『유가사지론』 계통 자토구결병기
9	法華經 卷1	2000년 12월	연세대 중앙도서관	×	○	×	×	『유가사지론』 계통
10	(晉本)華嚴經 卷20	2001년 3월	성암고서박물관	○	○	○	○	『화엄경』 계통
11	(周本)華嚴經 卷6	2000년 8월	성암고서박물관	○	○	○	○	『화엄경』 계통
12	(周本)華嚴經 卷22	2000년 8월	성암고서박물관	○	○	○	○	『화엄경』 계통
13	(周本)華嚴經 卷31	2000년 12월	호림박물관	○	○	○	○	『화엄경』 계통
14	(周本)華嚴經 卷34	2001년 3월	호림박물관	○	○	○	○	『화엄경』 계통
15	(周本)華嚴經 卷36	2000년 8월	성암고서박물관	○	○	○	○	『화엄경』 계통
16	(周本)華嚴經 卷57	2000년 8월	성암고서박물관	○	○	○	○	『화엄경』 계통

(이상 문현수(2019: 93-94)에서 전재함)

☞ 최근 공동 연구의 성과물로 <합부금광명경> 권3의 판독 및 해독안과 현대어 번역을 담은 장경준 외(2013) 및 <유가사지론> 권53의 판독안과 현대어 번역을 담은 김성주 외(2024)가 나왔는데, 후자는 아직 공간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런데 아무리 신중히 작성한 판독안도 연구가 진척되면서 꾸준히 업데이트될 수 밖에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당수의 점토석독구결 자료는 전산화가 이루어져 연구자들에게 공개가 되었으며 일부 자료의 경우 수정을 거쳐 공간이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전산화 자료의 이용시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즉 이는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한 공동 연구물로서 각 자료별로 시간을 두고 작성된 전산 자료이기 때문에 동일한 구결점의 해독안이 권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전산 자료의 판독안에 기록된 구결점의 위치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추상적인 위치인 기준 위치를 기준으로 입력이 되었기 때문에,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구결점 판독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도 존재한다(장경준 2009: 250-251).

(2) <주본화엄34, 08:03>
A : 雖住海水[11(·)]劫火[24(1), 25(-)]
中[11(·), 13(/), 53(1), 42(-), 33(/)]墮[35(·)]受此法[41(·), 13(·1)]
必[23(·)]得[43(1)]聞[31(·)]#31(·), 52(·)]

B:雖住海水[1]劫火[11,x七]中[1,ㄱ,ㄴ,ㄷ,X,4]墮失受此法[乙,x
ム]必ハ得[3]聞[X,ㄱ]

C:海水: 劫火 11x七 中: 1ㄱㄴㄷ 住X[雖]4 墮失 此 法乙 受x
ム 必ハ 得[3] 聞[X,ㄱ]

D:비록 바닷물이니 劫火의 가운데이니 하는 것에 住하더라도,
능히 이 법을 받되 받드시 능히 들을 수 있으며,

E:바닷물과 겁화(劫火) 중에 있게 되어도 이 법을 듣자울 수 있
으려니와



[그림 13]
주본 화엄경
권34 08:03



[그림 13-1]

(3) 〈유가20, 31:14-15〉

A:若世間心雖復已斷, 猶得現行, 彼於後時任運而滅

B:若 世間心 復ハ 已斷ㄴㄷㄴ[雖]4 猶 得 現行ㄴㄷ
ㄴ 彼 於後 時 任運 而 滅ㄴㄷㄴㄴㄴㄴ

C:만약 세간의 마음은 다시 이미 끊어졌어도 여전히 능히 現行
하지만, 그는 뒤의 때에 자유자재로 滅하고 할 것이며,

가령 주본 『화엄경』권34의 전산화된 결과물을 출판한 李承宰 외
(2009b)에서는 [그림 13]의 ‘中’에 현토된 구결점을 (2)처럼 ‘11(·),
13(/),53(1),42(-),33(/)’로 판독하고 ‘1,ㄱ,ㄴ,ㄷ,X,4’로 해독하고 있
다. 이 경우 42(-)는 양보 구문의 서술어에 쓰인 어미 구성의 일부를 나
타내는 자토로 해독되는 구결점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주본

『화엄경』에서 42(-)는 모두 선어말어미 ‘-ㄹ’로 해독되며 양보 구문의
서술어에 쓰인 어미 구성으로 해독되는 예는 발견되지 않는다(안대현
2009b; 文玄洙 2017). 오히려 이러한 환경에서는 자토석독구결에서 (3)
처럼 ‘ㄴ’가 쓰이는데, [그림 13]의 ‘中’에 현토된 구결점을 42(-)가 아닌
32(-)로 판독하고 ‘ㄴ’로 해독한다면 (2)처럼 42(-)를 ‘X’로 해독할 필요는
없어지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李承宰 외(2009b)에서는 42(-)가 아닌
32(-)일 가능성에 대해 각주로 언급하기도 하였지만, 42(-)가 어떠한 구
결자로 해독되는지 전산화 당시에 불분명했다는 점, 또 33(/)에 비해
42(-)로 판독한 구결점이 상대적으로 아래에 위치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42(-)로 판독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전산화된 자료에는 위와 같은 위치 판독 오류 외에도 형태 판독
의 오류, 부호 판독의 오류, 점토 해독 순서의 오류 등이 보고된 바 있
다(文玄洙 2017). 이는 관련 연구의 발전에 따른 해독 결과의 진전에
기인한 것도 있고 단순한 판독, 해독 오류인 것도 있다. 따라서 초기에
구축된 전산화 자료들의 경우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하는 한
편, 단순 판독 오류나 해독 오류는 없는지 점검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꾸준히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 문현수(2019: 96-98)에서 전재함)

이러한 상황은 점토석독구결 자료도 sktot와 같은 자료 공유 시스템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2.1. -白/𦵏(습)-

◎ 형태의 확인

이 형태는 고대국어에서부터 중세국어를 거쳐 현대국어의 ‘-습니다’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쓰여 왔으며, 관련된 연구도 일찍부터 이루어져 왔다. 선어말어미 ‘-습-’의 기본 기능은 [객체높임]으로 파악되나, 다른 기능으로 볼 만한 경우도 거론된 바 있다.

단순 표기를 기준으로 白은 삼국유사 향가에서 7회, 균여 향가에서 12회, 『도이장가』에서 1회 나타나며, 석독구결에서 𦵏은 총 101회(sktot 93회+『자비도량참법』 8회) 나타난다. sktot의 문법 분석을 따르면 사실상 그 전부가(단, 『자비도량참법』 부분은 문법 분석이 진행되지 않았음) 선어말어미이다.

(최성규(2024: 35)에서 인용함)

만일 sktot의 주석본에 <자비도량참법>도 포함되었다면, 나아가 점토석독구결 자료의 최신 판독 및 해독안이 연구자들에게 공유되었다면 위에 인용한 최성규(2024)의 기술은 더욱 풍부해질 수 있었을 것이다.

☞ [붙임2]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점토석독구결 해독의 성과를 종합해본 것이다. 경험과 열정을 갖춘 연구자나 연구자 그룹이 현 시점에서 최고 수준의 판독 및 해독안을 정비하여 공개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를 희망하며, 이 일이 성사된다면 기꺼이 힘을 보태고 싶다.

<참고문헌>

- 권인한 외(2018), 『초조대장경 유가사지론 권66 각필구결』, 국립한글박물관.
 김성주 외(2024), 『부록2]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53 점토석독구결』, 국가지정문화재(초조본 유가사지론 권53, 신응경) 보존처리 (결과보고서), 가천박물관·연수구청·고창문화재보존, 141-248.
 남풍현(2000), 「고려시대의 점토 구결에 대하여」, 『서지학보』 24, 한국서지학회, 5-45.
 문현수(2014), 「『유가사지론』 계통 점토석독구결에 사용된 빼침선의 기능」, 『구결연구』 33, 구결학회, 249-283.
 문현수(2019), 「점토석독구결의 전산 입력 현황과 과제」, 『구결연구』 42, 구결학회, 83-110.
 이강혁(2022), 「『유가사지론』 계통 점토석독구결 수직쌍점 해독에 대한 시론」, 『국어학』 101, 국어학회, 271-318.
 장경준(2003), 「점토석독구결 자료의 판독 및 해독 결과 기록 방안-『유가사지론』 권5, 8을 대상으로-」, 제28회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111-121.
 장경준(2009), 「점토구결 자료의 문법 형태에 대하여」, 『국어학』 56, 국어학회, 249-279.
 장경준(2011), 「석독구결 자료의 전산 입력 및 교감에 대하여」, 『국어사연구』 13, 국어사학회.
 장경준(2013), 「석독구결 자료의 주석말뭉치 구축에 대하여」, 『한국학연구』 46, 한국학연구소.
 장경준 외(2023), 『『합부금광명경』 권3 석독구결의 해독과 번역』, 역락.
 조병순(2002), 「(기조강연) 서지학적 측면에서 본 원전의 중요성」, 『구결연구』 8, 구결학회, 5-13.
 최성규(2024), 「향찰과 석독구결의 선어말어미 비교」, 제66회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33-69.

각필구결 자료 논의의 표준화를 위한 논의 자료

2003.1.7. 장경준

1. 논의의 필요성

이번 공동 연구 프로젝트의 핵심은 <유가사지론> 권5와 권8에 대해 ‘공동 판독안’과 ‘공동 해독안’을 작성하여 학계에 보고하는 것이다.

이 때 ‘공동 판독안’은 원문의 한자에 현토된 점토(구결점이나 부호)를 판독하고 그 결과를 모두가 합의한 공동의 매뉴얼에 의해 객관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따라서 판독 결과 기록을 위한 ‘공동 매뉴얼’을 먼저 준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1) 구결점의 현토 위치를 어떻게 세분할 것인가, 2) 이후 해독 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물리적인’ 위치를 기록할 것인가 아니면 해독을 고려하여 ‘해석된’ 위치를 기록할 것인가, 3) 한자의 자형에 따른 이른바 ‘구결점의 위치 변이’를 인정할 것인가, 인정한다면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반영하여 기록할 것인가 등등의 문제에 대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동 해독안’은 판독한 결과물을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 하에 기존에 보아왔던 자토 구결 자료의 형식으로 변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해독의 출발점이자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점도’에 대해 연구자들 사이에 기본적인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존에 발표된 점도들 사이에는 서로 소통하기 어려운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¹⁾

물론 위에 제기한 문제들은 이 자료 전반에 걸친 충분한 조사에 기반하여 치밀하게 논의되어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한두 번의 토론에 의해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이다. 그러나 ‘공동 연구’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이다.

이하에서는 위에 언급한 것들을 중심으로 현재 당면한 문제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그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어떠한지를 간략히 밝힘으로써 논의를 위한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한다.

2. 용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연구 참여자들 사이에서 일치되지 않고 있는 용어 사용의 문제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자. 이 자료와 관련하여 제안된 주요 용어 체계를 간략히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견해1) “符號口訣은 釋讀口訣의 일종으로서 文字口訣과 對立되는 개념”, “符號는 點吐와 符標로 구성”

		符標 (合符, 逆讀線 等 文字화가 不可能한 符號)
釋讀 口訣	{	符號口訣<
		點吐 (文字化 可能 符號)
		> 吐 (實質 言語形式 또는 그 表記)
		文字口訣 - 字吐 (文字로 表記한 吐)

1) 11월 2일 구결학회 월례강독회 논의 자료 참조

(견해2) “口訣은 漢文에 吐를 달아 우리말을 표기하는 방법”, “吐는 口訣點/口訣字와 符號로 구성”

釋讀 口訣 {	點吐釋讀口訣<	口訣點(기본적으로 표음문자의 기능을 수행; 口訣字에 대응됨)
		符號 (보조적인 표기 수단)
	字吐釋讀口訣<	口訣字(기본적으로 표음문자의 기능을 수행; 口訣點에 대응됨)
		符號 (보조적인 표기 수단)

연구 참여자 중에는 (견해1)과 (견해2)의 제안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어느 한 쪽이 견해를 수정하지 않는 한 일관된 용어 사용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용어의 사용을 어떤 방식으로 용인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3. 공동 판독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것은 ‘판독 및 해독안 샘플’ 자료를 보면서 논의할 것.)

1) 현토 위치 세분 방법의 문제

→필요한 조건: (1) 변별되는 모든 위치를 표시할 수 있도록 세분되어야 한다.

(2) 불필요한 빈칸이 최소화되도록 단순해야 한다.

→위의 두 조건을 최대한 만족시킨다는 측면에서, 현재 제안된 두 가지 안-판독 및 해독안 샘플 각주4)의 (나) vs [그림1]의 잠정 표시 위치- 중에서 [그림1]에 기반한 안이 더 나은 것으로 보인다.

2) 현토 위치 해석 방법의 문제

→‘물리적인 위치’를 기록할 것인가, 해독을 고려한 ‘해석된 위치’를 기록할 것인가?

(예1)



[1ㄱ] 能(05:13:19)



[1ㄴ] 余(05:06:22)



[1ㄷ] 余(05:14:23)



[1ㄹ] 余(08:08:20)

위 예들은 공통적으로 구결자 ‘ㄴ’에 대응되는 단점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구결점의 위치를 기록할 때 ‘물리적인 위치’를 기준으로 한다면 1ㄱ의 위치와 1ㄴ 및 1ㄷ의 위치와 1ㄹ의 위치는 서로 다르게 기록될 것이다. 또한 1ㄷ의 사선과 1ㄹ의 단점은 같은 위치로 기록될 것이다.

반면 위에 언급한 구결점들의 위치를 ‘해석된 위치’로 표시한다면 구결자 ‘ㄴ’에 대응되는 1ㄱ, 1ㄴ, 1ㄷ, 1ㄹ의 단점들은 모두 같은 위치로 기록될 것이며, (구결자 ‘ㄴ’에 대응되는) 1ㄷ의 사선과 (구결자 ‘ㄴ’에 대응되는) 1ㄹ의 단점은 다른 위치로 기록될 것이다.

→필자는 당장은 후자의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본다. 해석된 위치를 기록해야 뒤의 해독 단계에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고 불필요한 설명의 반복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²⁾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판독안의 단계를 ‘물리적인 위치’를 기록하는 1단계와 ‘해석된 위치’를 기록하는 2단계로 세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를 통해 ‘위치변이’와 관련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용이해지고 다른 계통 자료와의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3) ‘구결점의 위치변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³⁾

→위 2)의 문제와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서, 기준 위치에서 많이 벗어나 해독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다른 위치에 속한 것으로 오인될 수도 있는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 표시를 하여 따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줄 것을 제안한다.⁴⁾

4) 그 밖의 기술적인 문제 : 판독 및 해독안 샘플 각주22), 각주23) 참조

4. 공동 해독안과 관련하여

1) 점도의 문제

→그동안 공식적으로 제안된 <유가사지론>의 점도는 다음과 같다.⁵⁾⁶⁾

2) 하지만 이 방식은 기준 ‘점도’와 구결점의 ‘위치변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독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점도’와 ‘위치변이’가 아직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다른 연구자들의 비판을 초래할 수도 있다.

3) ‘구결점의 위치변이’의 개념과 개괄적인 현상을 기술한 필자의 논의에 대한 반론이 아직 없으므로 일단 암묵적으로 인정된 것으로 보고 논의를 진행하겠음.

4) 이렇게 하면 위 1ㄱ의 단점은 55(·)로, 1ㄴ, 1ㄷ, 1ㄹ의 단점들은 55=(·)로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판독 및 해독안 샘플 각주22) 참조.

5) 南豊鉉(2000), 「高麗時代의 點吐口訣에 대하여」, 『書誌學報』 24, 韓國書誌學會. pp.5-45.

尹幸舜(2001), 「한국의 符號口訣과 일본의 오코토(ヲコト)點에 대하여」, 일본 북해도대학 워크샵 발표 논문집. pp.91-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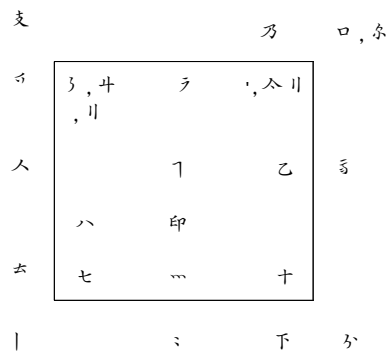
김영옥(2001), 「『유가사지론』 점토(點吐)의 해독 방법 연구」, 『口訣研究』 7, 口訣學會. pp.57-77.

李丞宰(2001), 「『瑜伽師地論』 角筆 符號口訣의 解讀을 위하여」, 『국어연구의 이론과 실제』. 태학사. pp.229-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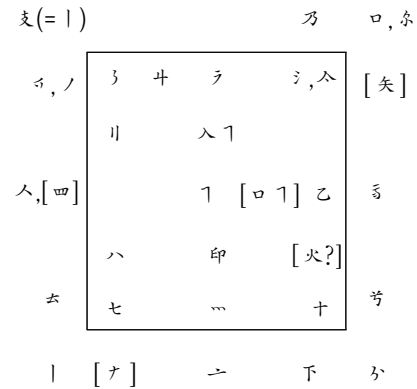
李丞宰.安孝卿(2002), 「角筆 符號口訣 資料에 대한 조사 연구 -誠庵本『瑜伽師地論』 卷第5와 卷第8을 중심으로-」, 『口訣研究』 9, 口訣學會. pp.115-145

장경준(2002), 「『瑜伽師地論』 角筆口訣에 대한 管見」, 구결학회 월례강독회(2002.2.23) 발표 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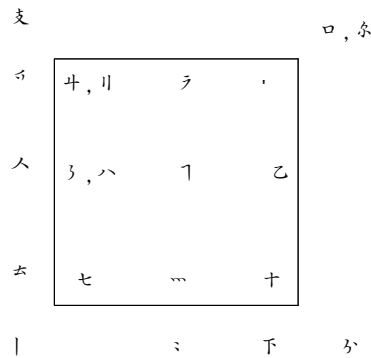
6) 이승재(2002)에서는 이승재(2001)과의 차이와 관련하여 “南豊鉉(2000), 윤행순(2001), 李丞宰(2001), 김영옥(2001), 장경준(2002) 등의 업적을 참조하여 새로 재구성한 것이다. 특히 ‘乃, ㄱ, 卽, ㅈ’ 등은 장경준(2002)의 독창적 견해를 밝혀 둔다.”(132쪽)라고만 하였다. 기존에 제안된 5개의 점도를 어떠한 절차에 의해 새로 ‘재구성’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것이다. 만일 그 ‘재구성’의 원칙과 방법 및 과정을 자세히 공개하고, 그에 대해 다른 연구자들이 동의할 수 있다면 점도의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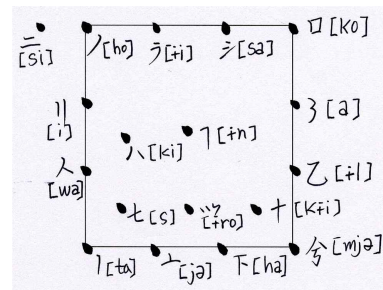
이승재(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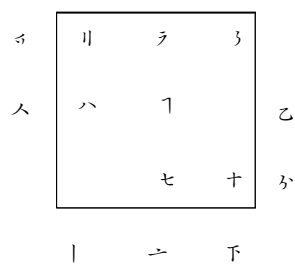
장경준(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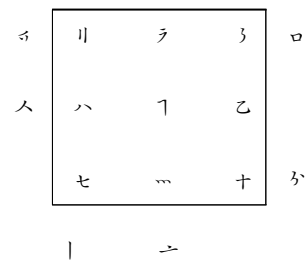
이승재(2001)



김영욱(2001)



남풍현(2000)



윤행순(2001)

→구결점의 기본인 단점의 점도는 해독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점도에 대한 견해가 다른 연구자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기회를 주되, 표준 점도가 합의될 때까지는 가장 복잡한 것을 기준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후처리 과정에서 기존에 해 놓은 것을 없애기는 쉬워도 새로 추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2) 해독 과정에서 상충되는 견해의 반영 문제

→연구계획서에는 “연구원 각자의 견해가 서로 상충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脚註를 잘 활용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음.

→해독 과정이나 독음 추정 등에 견해차가 있을 경우 (1) 누구의 견해를 본문에 반영할 것인가? (2) 다른 견해를 각주에 반영할 때 그것을 본문에 병기할 것인가, 각주에만 반영할 것인가? (3) 한 가지 사안에 대해 여러 견해가 병존할 때, 다른 견해들을 하나의 각주에 담을 것인가, 각각 각주로 담을 것인가? 등에 대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만일 강독 주관자의 견해를 본문에 반영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각주에 반영하면 해독의 일관성이 결여될 위험이 예견된다. 또한 연구책임자 혹은 팀장의 견해를 본문에 반영하고 나머지 사람의 견해를 각주에 반영하여 일관된 해독을 제시하려면 보고서의 일차적인 정리는 연구책임자 혹은 팀장이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논쟁적인 사안의 경우 본문이나 각주에 반영된 견해에 대해 그 견해의 제안자를 명시해 줄 것인지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견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의미와 더불어 앞으로 전개될 다양한 논의의 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명을 밝히기를 제안한다.

3) 그 밖의 기술적인 문제 : 판독 및 해독안 샘플 각주24), 각주26), 각주27) 참조

(붙임)

현재 가장 널리 보급되어 있으면서 연구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료는 이승재 선생님께서 배포하신 이점본일 것이다. 하지만 이 이점본은 정밀한 연구를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승재(2002)에서는 “(수정본을) 이 논문에 다 수록할 수가 없다. 따라서 별책으로 작성하여 학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다.”(141쪽)라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약속한 수정본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기존에 배포된 이점본에서 발견되는 명백한 오류에 대한 지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의 강독 과정에서는 이러한 작업도 병행할 것을 제안한다. (수정본의 보완에도 도움이 될 것임)

=====

2003.1.7.

판독 및 해독안 샘플

장경준

(예시1: 애초 연구계획서에 제시된 안)

(연구책임자: 이승재)

2.2.4. 共同 解讀案 및 翻譯案 제시

① 共同 判讀案을 바탕으로 하여 共同 翻譯案을 작성하고 이를 報告書에 첨부한다.

解讀 및 翻譯 作業은 이 공동 연구의 核心을 이룬다. 그런데 이 작업이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공동 작업을 통하여 이 어려움을 해소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연구원 각자의 견해가 서로 상충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脚註를 잘 활용할 예정이다. 이 공동 解讀案과 翻譯案도 물론 報告書에 수록하게 되는데, 그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7) [解讀案 및 翻譯案의 例]

本地¹⁾分中有尋有伺²⁾等三地之五

A³⁾: 復次[·]23⁴⁾云何[·]34雜染施設建立[·]61 [·]15⁵⁾ (유가8:1,5)

B⁶⁾: 復次ヲ云何乙雜染施設建立ノ所⁷⁾ (유가8:1,5)

C⁸⁾: 復次ヲ何乙雜染施設建立ノ{云}9)ノ所 (유가8:1,5)

D¹⁰⁾: 復次¹¹⁾의¹²⁾ 옯흔을 雜染¹²⁾施設建立(이)다 호리고 (유가8:1,5)

E¹³⁾: 어떻게 여러 옯오(煩惱) 등의 일어난을 시설하여 세움[雜染等起施設建立]이라고 하느냐 하면

- 1) ① 本體, 本源, 本來의 곳. ② 부처가 形을 나타내는 本源. ③ 불·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거짓 나타낸 垂迹身에 대해, 그 本體이며 진실한 진리의 몸[法身]인 불·보살을 本地라 함.
- 2) 尋은 대상에 대하여 그 뜻과 이치를 찾아 구하는[尋求] 것이고, 伺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세히 분별하고 찾아 살피는[伺察] 정신 작용을 말한다.
- 3) 이 A는 원문에 기입된 부호를 옮겨 순서대로 배열한 것이다. 따라서 이 A는 判讀文이라 부를 수 있다. ‘立’字의 [·]61과 [·]15처럼 하나의 한자에 둘 이상의 점토가 기입되어 있는 때가 많다. 이들을 횡렬로 배열할 때에는 해독 순서에 따라 배열하였다. 즉 앞에 온 것을 먼저, 뒤에 온 것을 나중에 해독한다.
- 4) [·]23은 점토의 종류가 單點 ‘·’이고 그 위치가 23임을 뜻한다(이승재 2001나 참고).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점토의 위치를 다음의 숫자로 대체한 것이다. 이승재(2001나)에서는 점토의 위치를 다음의 (가)로 제시한 바 있으나 장경준(2002)의 논의를 수용하여 (나)로 수정한다. (다)는 그 간의 논의를 종합하여 필자가 만들어 본 點圖이다. 이와 같이 발전해 온 과정에서 남풍현(2000), 이승재(2001나), 김영옥(2001), 장경준(2002) 등이 크게 공헌하였다. 點圖 (다)의 ‘ㄴ, ㄷ, ㄹ, ㅁ’ 등은 특히 장경준의 독창적 견해를 밝혀 둔다.

(가)					(나)					(다)				
01	02	03	04	05	11	12	13	14	15	支	12	13	ㄴ	口, ㄴ
06	07	08	09	10	21	22	23	24	25	ㄷ	ㄴ, ㄷ	ㄹ	ㄷ, ㄴ	25
11	12	13	14	15	31	32	33	34	35	人	ㄴ	ㄹ	乙	ㄷ
16	17	18	19	20	41	42	43	44	45	41	ハ	ㄹ	44	45
21	22	23	24	25	51	52	53	54	55	ㄴ	ㄷ	ㄴ	十	55
					61	62	63	64	65	ㄴ	62	ㄴ	下	ㄴ

- 5) [·]15는 마치 [·]15인 것처럼 보이나 다음의 두 가지를 근거로 하여 [·]15를 택한다. 첫째, 디지털 화면으로 확대해 보면 [·]15일 가능성보다는 [·]15일 가능성이 높다. 둘째, [·]15의 예는 아주 많으나 [·]15는 이 예를 제외하면 눈에 띄지 않는다.
- 6) 이 B는 A의 點吐를 字吐로 바꾼 것이다. 따라서 B를 字吐文, A를 B로 바꾸는 과정을 字吐化 과정이라고 부를 수 있다.
- 7) 이에 대응하는 구성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가장 많이 나온다.
何ノヲ云聞正法圓滿ノ{云}ノ所
- 8) 이 C는 字吐文을 우리말 語順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 이 단계에 오면 符號가 어느 漢字에 붙어야 하는지, 語順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어느 한자가 不讀字인지 다 드러난다. 말하자면 字吐 釋讀 口訣 자료를 우리말 어순으로 배열한 것과 같다. 이를 字吐 解讀文이라 부르기로 한다.
- 9) 不讀字는 이와 같이 { }로 묶어서 표기한다.
- 10) 이 단계는 해독문을 正音으로 고쳐서 나타낸 것이다. C를 D로 바꾸는 과정을 正音化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이 D를 진정한 의미의 해독문이라 할 수 있다. 앞의 字吐 解讀文과 구별할 때에는 正音 解讀文이라 부르기로 한다.
- 11) 이 ‘의’는 15세기의 특이 처격에 해당할 것이다.
- 12) 一切有漏法の 總名. 善, 惡, 無記 세 가지의 성질을 겸한다. 貪 등을 말한다. 煩惱의 業苦.

- A: 謂 由[〕 三 種 雜 染[·]34 [↗]53¹⁴) 應 知[\\]52¹⁵) [·]61 何 等[/]34 爲 三[·]61 [·.]15
(유가8:1,5-6)
- B: 謂 由[〕 三 種 雜 染乙 尸入ゝ 應 知ゝ 何 等 ッ 1 乙 爲 三 1 ノ 々 ロ (유가8:1,5-6)
- C: {謂} 三 種 雜 染乙 由 尸入ゝ 知ゝ 應 1 16) 何 等 ッ 1 乙 17) 三 1 {爲} ノ 々 ロ (유가8:1,5-6)
- D: 三 種 雜 染을 삼옴¹⁸로 알옴¹⁸) 맞다¹⁹) 옳 ㄷ 혼 올 三(이)다²⁰) 호리고 (유가8:1,5-6)
- E: 세 가지의 염오인 줄 알아야 한다 무엇이 세 가지인가?

(예시2: 2002.11.2 구결학회 월례강독회에서 제시된 안의 보완판²¹)

(제안자: 장경준)

A: 원문에 현토된 구결점과 부호를 판독한 결과²²)²³)

- 13) 여기에는 東國譯經院의 유가사지론 現代語 翻譯文을 옮겨 놓았다. 부분적으로 이 번역문을 修正한 곳도 있다. 앞으로는 번거로움을 피하여 이 A, B, C, D, E를 생략하기로 한다.
- 14) [·]34는 ‘雜染’에, [↗]53은 ‘由’에 통합되는 점토이다. [↗]은 화살촉 부분이 點인 느낌표형 점토인데, 인쇄의 편의상 이렇게 표기하였다. ‘由’에 통합되는 점토를 이처럼 ‘染’에 적어 넣은 것은 점토를 句나 節의 끝에 몰아서 찍었기 때문이다(남풍현 2000). 이 현상을 밝힌 것은 부호구결의 해독에 결정적 단서가 되었다. 이를 이승재(2001나)에서는 句節末懸吐 原則이라 부른 바 있다.
- 15) 이를 ‘ゝ’으로 읽어야 할지 ‘ㄷ ㄱ’으로 읽어야 할지 아직 분명하지 않다.
- 16) 자토구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이 가장 많이 나온다.

廣 二 說 尸入 1 知 ノ 應 乙 1

- 17) ‘何’의 바로 뒤에 오는 ‘等’에는 다음 예와 같이 ‘- ッ 1 乙’이 붙거나 ‘- 1 ッ 1 乙’이 붙는 것이 일반적이다.

何 ㄷ 等 ッ 1 乙 五 1 1 {爲} ノ 々 ロ (유가 20)

何 ㄷ 等 1 ッ 1 乙 菩薩摩訶薩 尸 聞藏 3 ノ 々 로 {爲} ッ 1 乙 尸入 1 (華疏 一 3)

여기서는 유가사지론을 따라 [/]34를 ‘- ッ 1 乙’로 읽어 둔다.

- 18) 유가사지론 자토구결에서는 항상 ‘其相 乙 知 ノ 應 乙 1’로 나오므로 ‘知’를 새겨 읽었는지 음독하였는지 불투명하다. 여기서는 석독하되 ‘알옴’이 아니라 ‘알음’으로 읽어 둔다.
- 19) 이처럼 ‘應 1’를 ‘맞다’로 읽는 것은 이승재(1995)를 참고하기 바란다. ‘應’을 不讀字로 보지 않는 논거로 ‘應[·]11’ 즉 ‘應 ㄷ (유가8:1,12-3)’를 들 수 있다. 필자는 ‘ㄷ’를 지정문자로 간주하므로 이에 따라 ‘應’을 ‘맞-(<맞-)’으로 읽는다.
- 20) 계사 ‘-이-’를 표기하는 점토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임의로 적어 넣어 이해할 수밖에 없다.

- 21) 보완된 내용은 아래 각주에서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음.

- 22) A는 영인본의 관찰을 통해 판독한 점토(구결점과 부호)를 현토된 한자의 오른쪽 ‘[]’ 안에 기록한 것이다. 각각의 점토는 ‘.’로 구분하였으며 구체적인 표기 원칙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구결점의 경우 위치 표시에 이어 ‘()’ 안에 형태 표시를 하였는데, 단점은 무표적인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일관된 처리를 위하여 함께 표시하였다. 예컨대 [그림2]에서 ‘3’, ‘4’, ‘11’에 대응하는 것으로 표시된 구결점이 하나씩 현토된 경우 ‘[22(·), 22~23(·), 22~32(·)]’으로 기록하였다. (‘22~23’은 22와 23의 사이를 뜻함) 이 때, 표시된 위치는 한자의 자형에 따른 위치 변이를 고려하여 ‘해석된’ 결과이며, 둘 이상의 해석 가능성이 있을 경우 ‘#’를 경계로 하여 모두 기록해 주었고, 변이 위치가 기준 위치에서 많이 벗어나 해독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다른 위치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때에는 위치 표시 다음에 ‘=’를 붙였다. 예) ‘55=(·)’ 한편 선이 두 자리에 걸쳐 있으면서 어느 한 자리의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 경우, 예컨대 41과 42에 걸쳐 기입된 수평선은 ‘&’을 써서 ‘[41&42(-)]’로 기록하였다. 그리고 한자의 바깥 쪽에 현토된 구결점이 일반적인 현토 위치보다 훨씬 멀리 위치한 경우에는 위치 표시 숫자에 ‘+’를 달았다. 예) ‘51+(·)’, ‘53+(/)’

다음으로 부호의 경우 그 기능에 따라 ‘역독선, x자합부선, 지시선, 경계선, 구결자, 미상’으로 분류하여 기록하고, 그 중 ‘지시선, 경계선, 구결자’는 이어서 ‘()’ 안에 구체적인 형태 표시를 하였다. 합부선의 ‘x자’는 선이 걸려진 글자의 개수를 가리키되 그것이 걸려있는 마지막 글자에 표기하고, 역독선과 이어져 있을 경우 ‘x자합부-역독선’으로 기록하였다. 그리고 ‘미상’의 경우 이어서 ‘()’ 안에 의심되는 기능을 표시해 주었다. 예) ‘미상(오류표시?)’, ‘미상(제거표시?)’

B: 현토된 구결점의 대응 구결자 표시²⁴⁾(아래의 [그림2]²⁵⁾ 참조)

C: 자토석독구결문으로 재구성한 결과²⁶⁾

D: 위의 자토석독구결문의 추정 독음²⁷⁾

E: 구결문에 의거하여 현대국어로 축자역한 결과(밑의 괄호 안은 해당 부분의 역경원 번역임)

11	12	13	14	15
21	22	23	24	25
31	32	33	34	35
41	42	43	44	45
51	52	53	54	55

[그림1] 잠정 표시 위치

支(=1)	[?]	乃	口, 糸
イ, ノ	う	斗	う
	リ	入	1
人, [四]		1	[口 1] 乙
	ハ	印	[火?]
ホ	セ	...	十
1	[ナ]	...	下

[그림2] 단점의 점도

<유가 권5 01:04-10>

A: 復次[23(·)] 於色界中[22(·), 42(·)]

初靜慮地[44(·)]受生[33(/)]諸天 即受[역독선]彼地[42(·)?]離生喜樂[34(·), 55(·)]

第二靜慮地諸天 受定生喜樂[34(·)?, 55(·)]

- 한편 영인본의 관찰로는 해독에 유의미한 점토인지의 여부가 분명치 않은 경우 1)여러 정황으로 보아 유의미한 점토일 것으로 예상되나 분명히 확인되지 않는 것은 위의 원칙에 따라 표기하되 ‘?’를 붙였고, (이러한 것들은 다음의 B, C에 반영시킴) 2)점토일 것으로 의심할 수 있으나 해독에 불필요하여 각필에 의한 인위적인 점토가 아니거나 인위적인 것이더라도 잘못된 것임이 분명해 보이는 것은 ‘?’를 붙인 채 따로 ‘[]’ 안에 표시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다음의 B, C에는 반영하지 않음)
- 각 단위의 배열 순서는, 1)‘[]’는 ‘[]’에 앞서고, 2)각각의 안에서는 구결점이 부호에 앞서며, 3)구결점과 부호들 사이에서는 해독에 먼저 반영되는 것이 앞서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23) A에서 단점도 (·)로 형태 표시를 해 주거나 위치 표시를 더 세분하기로 한 것 등은, 후처리과정에서 기존에 해 놓은 것을 없애기는 쉬워도 새로 추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처음 입력할 때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의미한 것으로 의심되는 것을 따로 분리한 것은 앞으로 검색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배제시킬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 24) B는 A에 기록된 각각의 구결점들, (그것과 대응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존 자토석독구결에 쓰인 구결자로 표시한 것이다. 이 때 1)‘?’를 붙인 것은 아직 논거가 충분치 않음을, 2)전체를 ‘(X)’로 표시한 것은 어떤 구결자(들)에 대응되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했음을, 3)일부분을 ‘(x)’로 표시한 것은 대응 구결자들의 일부가 분명치 않음을 각각 뜻한다.
- 한편 A에서 ‘#’에 의해 나열된 해석 가능성이 B에서도 반영될 경우, 결과적으로 C 단계 이후에 선택된(혹은 좀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 것을 앞에 놓도록 하였다.
- 25) [그림2]에서 “.”에 의해 나열된 구결자들은 현토된 위치가 같음을 뜻하고, “[]” 안에 표시된 구결자 혹은 ‘?’는 분포 상의 제약으로 인해 아직 논거가 충분치 않음을 뜻한다.
- 26) C는 A와 B를 바탕으로 하여 기존 자토석독구결 자료의 문법에 맞게 (1)각각의 구결점을 직접 관련되는 문장 성분에 순서대로 배당하고, (2)어순을 재배치한 다음, (3)부독자 표시 및 생략 부분 복원 등의 단계를 거친 결과를 표시한 것이다. 이 때 ‘[]’는 부독자(전훈독 표기의 대상이 된 한자 포함)의 표시이고, ‘()’ 안의 글자는 현토된 대응 구결점은 없지만 해독 과정에서 보충해 넣은 것임을 뜻한다.
- 27) 석독구결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반영한 것으로서 표기 방식은 기존 관례를 따른다.

第三靜慮地[42(·)]諸天[33(/)]²⁸⁾ 受[역독선]離喜妙樂[34(·)?,55(·)]
 第四靜慮地[42(·)]諸天[33(/)#33(·)] 受[역독선?]捨念淸淨寂靜無動[42(·)]之樂[34(·),55(·)]
 無色界[42=(·)]諸天[33(-)#33(·)]²⁹⁾ 受[역독선]極寂靜解脫之樂[34(·)?,51~52(·)]

B: 復次[ㄹ] 於色界中[ㄹ, ㄷ]

初靜慮地[+]受生[ㄹ 1]諸天 卽受彼地[ㄷ]離生喜樂[ㄷ, ㄱ]
 第二靜慮地諸天 受定生喜樂[ㄷ, ㄱ]
 第三靜慮地[ㄷ]諸天[ㄹ 1] 受離喜妙樂[ㄷ, ㄱ]
 第四靜慮地[ㄷ]諸天[ㄹ 1] 受捨念淸淨寂靜無動[ㄷ]之樂[ㄷ, ㄱ]
 無色界[ㄷ]諸天[ㄹ 1?] 受極寂靜解脫之樂[ㄷ, ㄱ 1?]

C: 復次ㄹ [於] 色界 中ㄹ ㄷ

初靜慮地+ 受生ㄹ 1 諸天(ㄹ 1) 卽 彼地ㄷ 離生喜樂ㄷ 受ㄱ
 第二靜慮地(ㄷ) 諸天(ㄹ 1) 定生喜樂ㄷ 受ㄱ
 第三靜慮地ㄷ 諸天ㄹ 1 離喜妙樂ㄷ 受ㄱ
 第四靜慮地ㄷ 諸天ㄹ 1 捨念淸淨寂靜無動ㄷ [之] 樂ㄷ 受ㄱ
 無色界ㄷ 諸天ㄹ 1 極寂靜解脫之樂ㄷ 受ㄱ 1

D: 復次の [於] 色界 中앗

初靜慮地긔 受生흔 모든 하늘흔 卽 彼地ㅅ 離生喜樂을 받으며
 第二靜慮地(ㅅ) 모든 하늘흔 定生喜樂을 받으며
 第三靜慮地ㅅ 모든 하늘흔 離喜妙樂을 받으며
 第四靜慮地ㅅ 모든 하늘흔 捨念淸淨寂靜無動ㅅ [之] 樂을 받으며
 無色界ㅅ 모든 하늘흔 極寂靜解脫之樂을 받거다

E: 다음으로 色界 中の

初靜慮地에서 受生한 모든 하늘은 곧 그 地의 離生喜樂을 받으며
 第二靜慮地의 모든 하늘은 定生喜樂을 받으며
 第三靜慮地의 모든 하늘은 離喜妙樂을 받으며
 第四靜慮地의 모든 하늘은 捨念淸淨寂靜無動의 樂을 받으며
 無色界의 모든 하늘은 極寂靜解脫之樂을 받는다.

(다음 형상 세계 안에서, 초정려 자리[地]에 삶을 받는 하늘들은 곧 그 자리에서 욕심 세계를 여의고서 기쁨과 즐거움이 남[離生喜樂]을 느끼며, 제2정려 자리의 하늘들은 선정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남[定生喜樂]을 느끼며, 제3정려 자리의 하늘들은 제2정려의 기쁨을 여의고서 미묘한 즐거움[離喜妙樂]을 느끼며, 제4정려 자리의 하늘들은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평등한 생각[捨念]에서 깨끗하고 고요하여 움직임이 없는 즐거움[淸淨寂靜無動之樂]을 느끼며, 무형 세계의 하늘들은 지극히 고요하여 해탈의 즐거움[極寂靜解脫之樂]을 느낀다.)

<유가 권5 01:10-13>

A: 又 由六種殊勝[35(/),24(·),43(·)]故[21=(·)] 苦樂殊勝{35(/)?} 應知[42(\),51(·)#51(·\)]

一形量殊勝 二柔軟殊勝 三緣殊勝 四時殊勝 五心殊勝 六所依殊勝[51(·)]

B: 又 由六種殊勝[ㄹ 1 ㄷ, ㄹ, ㄴ]故[ㄴ] 苦樂殊勝 應知[ㄴ ㄷ ㄷ³⁰⁾, 1]

28) 기존의 이점본에는 33(-)인 것으로 되어 있음.

29) 반복되는 구절에서 앞에서는 ‘天’에 두 번에 걸쳐 33(/)이 현토되었다. 33(/)는 ‘ㄹ 1’에 대응되므로, ‘天ㄹ 1’은 ‘天’을 혼독하여 ‘하늘흔’으로 읽은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여기서는 같은 환경에서 33(-) 혹은 33(·)이 현토되어 있는데, 이는 잘 관찰되지 않는 유형이다. 일단 앞선 예와 같은 방식으로 읽었을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분명치 않음.

30) 한문 원문의 ‘應知’는 기존 자토석독구결 자료에서 예외없이 ‘知 ㄱ[應]ㄷ 1’로 현토된 사실과, 이 자

- 一形量殊勝 二柔軟殊勝 三緣殊勝 四時殊勝 五心殊勝 六所依殊勝[1]
 C: 又 六種殊勝 ヲ 1 乙 由 3 (1) 〓 [故ノ] 苦樂殊勝(ヲ 1 1 1)³¹⁾ 知ノ 〓 [應]セ 1
 一形量殊勝 二柔軟殊勝 三緣殊勝 四時殊勝 五心殊勝 六所依殊勝(1) 1
 D: 또 六種殊勝흔 을 (말미)삼은 〓로 苦樂殊勝흔인 알읏다/知훈다
 一形量殊勝 二柔軟殊勝 三緣殊勝 四時殊勝 五心殊勝 六所依殊勝이다
 E: 또 六種의 殊勝한 것을 말미암은 까닭으로 苦樂殊勝한 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그 여섯 가지는) 一形量殊勝 二柔軟殊勝 三緣殊勝 四時殊勝 五心殊勝 六所依殊勝이다
 (또 여섯 가지의 가장 뛰어난[六種殊勝]으로 말미암아 괴로움과 즐거움이 가장 뛰어난 줄 알아야 하리니,
 첫째는 몸 부피가 가장 뛰어난[形量殊勝]이요, 둘째는 부드러움이 가장 뛰어난[柔軟殊勝]이요, 셋째는 인
 연이 가장 뛰어난[緣殊勝]이요, 넷째는 때가 가장 뛰어난[時殊勝]이요, 다섯째는 마음이 가장 뛰어난[心殊
 勝]이요, 여섯째는 의지함이 가장 뛰어난[所依殊勝]이다.)

<유가 권5 01:13-17>

A: 何以故

如如身量[22~32(·)?] 漸[42(·)]增[22(·)]廣大[45(\)#44~45(\),32~42(·)]
 如是[11(·)#11~21(·)]如是[11(·)#11~21(·)] 苦[22~32(·)]轉[22(·)#22~32(·)]殊勝[55(·)]
 如如依止[22~32(·)?] 漸[42(·)]更[22(·)]柔軟[45(\),32~42(·)]
 如是[11(·)#11~21(·)]如是[11(·)] 苦[22~32(·)]轉[22(·)#22~32(·)]殊勝[55(·)]
 如如苦緣[22~32(·)] 漸[42(·)]更[22(·)]猛盛[22(·)]衆多差別[45(\),32~42(·)]{42(·)?}
 如是[11(·)]如是[11(·)#11~21(·)] 苦[22~32(·)]轉[22(·)]殊勝[55(·)]

B: 何以故

如如身量[1] 漸[セ]增[3]廣大[ノ 1 乙,ハ] 如是[3]如是[3] 苦[1]轉[3]殊勝[3]
 如如依止[1] 漸[セ]更[3]柔軟[ノ 1 乙,ハ] 如是[3]如是[3] 苦[1]轉[3]殊勝[3]
 如如苦緣[1] 漸[セ]更[3]猛盛[3]衆多差別[ノ 1 乙,ハ] 如是[3]如是[3] 苦轉[3]殊勝[3]

C: 何以故(〓 ヲ 1)³²⁾

身量 1 漸セ 増 3 廣大ノ 1 乙 [如]如ハ 是 [如] 3 是 [如] 3 苦 1 轉 3 殊勝(〓) 3
 依止 1 漸セ 更 3 柔軟ノ 1 乙 [如]如ハ 是 [如] 3 是 [如] 3 苦 1 轉 3 殊勝(〓) 3
 苦緣 1 漸セ 更 3 猛盛(〓) 3 衆多差別ノ 1 乙 [如]如ハ 是 [如] 3 是 [如] 3 苦(1) 轉 3 殊勝(〓) 3

D: 何以故여흔곤

身량이 漸스 増아 廣大흔을 국 이 다 이 다 苦이 轉아 殊勝흔며
 依止이 漸스 가시아 柔軟흔을 국 이 다 이 다 苦이 轉아 殊勝흔며
 苦緣이 漸스 가시아 猛盛흔아 衆多差別흔을 국 이 다 이 다 苦이 轉아 殊勝흔며

E: 어째서인가 하면

身량이 점점 増하여 廣大해지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苦가 轉하여 殊勝흔며
 依止가 점점 다시 柔軟해지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苦가 轉하여 殊勝흔며
 苦緣이 점점 다시 猛盛해지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苦가 轉하여 殊勝흔며

(왜 그러나 하면, 한결같이 몸의 부피가 점점 늘고 커지면 이렇고 이런 괴로움은 한층 더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며, 한결같이 의지하여 머무름[依止]이 점점 더 부드러워지면 이렇고 이런 괴로움은 한층 더 가장

료에서 역사선 방향의 쌍점이나 선은 (특히 기준 사각형 내부에서) ‘ノ-’로 시작하는 구결자들에 대응
 될 수 있다는 가설에 의거하여 42(\)을 ‘ノ 〓セ’에 대응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31) 이 자료에서는 ‘應知’로 끝나는 문장의 경우 ‘應知’ 앞에는 ‘ 〓 1 1 1 ’(혹은 ‘ノ 1 1 1 ’)으로 읽을 수
 있는 토가 달리는 특징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 〓 1 1 1 ’을 보충하였다.

32) 기존 자토석독구결 자료에서는 ‘何以故’에 다양한 토가 달리는데, <유가사지론>에서는 ‘ 〓 ヲ 1 ’의
 유형만 관찰되므로, 여기서는 ‘ 〓 ヲ 1 ’을 보충하였다.

뛰어나기 때문이며, 한결같이 괴로움의 인연이 점점 더 왕성하여 여러 가지로 나뉘지면 이렇고 이런 괴로움은 한층 더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며,)

(이하 생략)

각필구결 프로젝트 연구 모임(2003.1.7.)

참석자 : 이진경, 황선엽, 박진호, 이용, 이병기, 서형국, 서민욱, 장경준, (황국정, 김문정)

정 리 : 장경준

각필구결 자료 논의의 표준화를 위한 논의 결과

1. 용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 어떤 용어 체계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연구 참여자 각자의 판단에 맡기기로 한다.

2. 공동 판독안과 관련하여

☞ 현토 위치 세분 방법의 문제 : 다음의 안을 기본안으로 채택한다.

11	12	13	14	15
21	22	23	24	25
31	32	33	34	35
41	42	43	44	45
51	52	53	54	55

[그림1] 구결점의 현토 위치

☞ 현토 위치 해석 방법의 문제 : 점토의 해독을 고려한 “해석된 위치”를 기록하기로 한다.

☞ 구체적인 표기 원칙

(1) 판독한 점토(구결점과 부호)를 현토된 한자의 오른쪽 ‘[]’ 안에 기록하되, 각각의 점토는 ‘.’로 구분한다.

(2) 구결점은 위치 표시에 이어 ‘()’ 안에 형태 표시를 한다.

ㄱ. 위치 표시… 위 [그림1]의 숫자를 이용하되, 어느 한 위치로 해석되지 않는 경우 ‘~’표를 이용한다.

(예) 구결자 ‘+’에 대응되는 단점은 ‘22~23’로, ‘ㄴ’에 대응되는 사선은 ‘24~15’로 표시한다.

단, 변이 위치가 기준 위치에서 많이 벗어나 해독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다른 위치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때에는 숫자 앞에 ‘=’를 붙이고, 한자의 바깥 쪽에 현토된 구결점이 일반적인 위치보다 훨씬 멀리 있을 경우에는 숫자 앞에 ‘+’를 붙인다. (예) ‘=55’, ‘+51’
 ㄴ. 형태 표시… ‘훈글2002’의 ‘한글 두벌식 옛글(신명조)’ 자판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조합하여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단점, 쌍점, 선, 눈썹은 ‘·, ∙, ∴, ∴, ∴, /, \, -, |, |, |, |, \, \, ∴, /, /’로 표시한다.

단, 위의 원칙으로 입력이 불가능한 ‘ㄴ눈썹’과 ‘ㄴ눈썹’은 (HNC)문자표의 ‘ㄴ’(2238)와 ‘ㄴ’(22F7)을 사용하기로 한다.

ㄷ. 위치나 형태가 둘 이상의 해석 가능성을 가지는 경우 ‘#’을 경계로 모두 표시하되, 해독 단계에서 우선시되는 것을 먼저 제시한다. (예) ‘22(·)#22~23(·)’, ‘45(/)#45(·)’

(3) 부호는 그 기능에 따라 ‘역독선, x자합부, 지시선, 경계선, 구결자, 미상’으로 분류하여 기록하되, 중 ‘지시선, 경계선, 구결자’는 이어서 ‘()’ 안에 구체적인 형태 표시를 한다. 합부의 ‘x자’는 선이 걸쳐진 글자의 개수를 가리키되 그것이 걸쳐있는 마지막 글자에 표기하고, 역독선과 이어져 있을 경우 ‘x자합부-역독선’으로 기록한다.

(예) ‘2자합부-역독선’, ‘지시선(/)’, ‘경계선(ㄴ)’, ‘구결자(ㄴ)’, ‘미상’

(4) 영인본의 관찰로는 해독에 유의미한 점토인지의 여부가 분명치 않은 경우

ㄱ. 여러 정황으로 보아 유의미한 점토일 것으로 예상되는 것… 위의 원칙에 따라 표기하되 끝에 ‘?’를 붙인다. (이러한 것들은 해독 단계에 반영시킴)

ㄴ. 점토일 것으로 의심할 수 있으나 해독에 불필요한 것… ‘?’를 붙인 채 따로 ‘{}’ 안에 표시한다. (이러한 것들은 해독 단계에는 반영하지 않음)

(5) 각 단위의 배열 순서는 ①‘[]’는 ‘{}’에 앞서고, ②각각의 안에서는 구결점이 부호에 앞서며, ③구결점과 부호들 사이에서는 해독에 먼저 반영되는 것이 앞서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공동 해독안과 관련하여

☞ 점도의 문제 : 기존에 제안된 것 중 가장 복잡한 것을 기준으로 논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支(=1)	乃	口,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乙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그림2] 단점의 점도

☞ 상충되는 견해의 반영 문제 : 강독모임에서 합의된 견해를 본문에 반영하고 소수 의견은 각주에 반영한다. (제안자의 이름을 따로 밝히지는 않음)

☞ 해독안의 기술적인 처리

(1) 해독안은 다음의 5단계로 나눈다.

- A: 공동 판독안
- B: 판독된 구결점의 대응 구결자 표시
- C: 자토석독구결문 형식의 공동 해독안
- D: 공동 해독안을 현대국어로 축자역한 결과
- E: 해당 부분의 역경원 번역

(2) 'B'의 단계에서 사용하는 기호들

- ㄱ. '?' ... 아직 논의의 근거가 충분치 않음
- ㄴ. 'X' ... 어떤 구결자(들)에 대응되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했음
- ㄷ. 'x' ... 대응 구결자들의 일부가 분명치 않음
- ㄹ. '#' ... 둘 이상의 해석 가능성이 있음(좀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 것을 앞세움)

(3) 'C'의 단계에서 사용하는 기호들 :

- ㄱ. '[' ... 부독자(전훈독 표기의 대상이 된 한자 포함)의 표시
- ㄴ. '(' ... 현토된 대응 구결점은 없지만 해독 과정에서 보충해 넣은 구결자임.

(4) 그 밖의 원칙

- ㄱ. 'A'와 'B'의 단계에서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C'의 단계에서는 기존의 관례에 따라 띄어쓰기를 한다. 세 단계 모두 줄바꾸기는 하지 않는다.
- ㄴ. 'B'와 'C'의 단계에서 사용할 구결자는 문자표에서 합의된 원칙에 의해 정해진 것을 사용한다.

주요 구결자별 코드 번호는 다음과 같다(HNC 문자표 기준):

ハ 1D00 ャ 1D05 ナ 1D09 ロ 1D0A ホ 1D0E 人 1D10 所 1D28 + 1DF3
ㄱ 1D19 ㄴ 1D26 ㄷ 1D1C ㄹ 1D21 ㅁ 1D24 ㅂ 1D3D ㅅ 1D44 ㅆ 1D4B
ㅈ 1D4C ㅣ 1D29 ㅊ 1D34 ㅋ 1D93 ㅋ 1D37 ㅌ 1D3A ㅍ 1D40 ㅑ 1D52
ㅓ 1D51 ㅕ 1D5E ㅗ 1D60 ㅛ 1D66 ㅜ 1D6A ㅠ 1D6E ㅡ 1D71 ㅜ 1D79
ㅟ 1D81 ㅠ 1D88 ㅢ 1D89 ㅤ 1D8A ㅥ 1DA4 ㅦ 1D8C ㅧ 1D95 ㅨ 1D9B
ㅩ 1DFF ㅪ 1DA9 ㅫ 1DB9 ㅬ 1D0F ㅭ 1DC5 ㅮ 1DC2 ㅯ 1DD0 ㅰ 1DD6
ㅱ 1DDB ㅲ 1E05 ㅳ 1E06 ㅴ 1D42 ㅵ 1DFE ㅶ 1DF0 ㅷ 1DE6 ㅸ 1DE8
ㅹ 1D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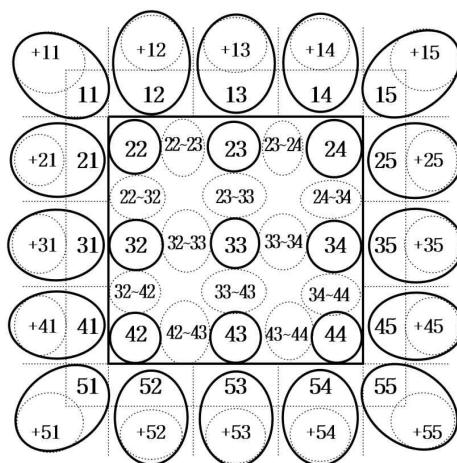
(첨부하는 글자 상용구 파일("sokdokkugyol.ido")을 자신의 한글2002에 등록한 다음 그것을 이용하여 입력하시면 편리합니다.)

- ㄷ.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기호나 새로운 표기 방식을 임의로 추가하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 공동의 합의에 의거하여 이상의 원칙을 수정하여야 함)

점토석독구결에 달리는 토, 즉 점토(點吐)는 한자의 일정한 위치에 일정한 형태로 기입되는 구결점으로 구성된다. 구결점의 위치는 한자의 자형을 사각형으로 가정하고 그 사각형의 안팎을 균등하게 구분한 25곳으로 설정할 수 있다. 점토석독구결 자료는 크게 유가 계통과 화엄 계통으로 나뉘는데,¹⁾ 화엄 계통의 구결점 위치는 [그림 1]의 모형으로 기술할 수 있으나 유가 계통에서는 구결점들이 서로 변별되는 위치가 더욱 잘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림 2]의 확장형 모형이 필요하다.

11	12	13	14	15
21	22	23	24	25
31	32	33	34	35
41	42	43	44	45
51	52	53	54	55

[그림 1] 구결점의 위치 구분 모형 - 기본형



[그림 2] 구결점의 위치 구분 모형 - 확장형

[그림 1]에 보이듯 각각의 위치는 숫자를 조합하여 표시한다. 확장형은 기본형을 바탕으로 하되 기준사각형 안쪽에서 기존 위치와 위치 사이에 새로운 위치(‘~’로 표시)가 설정될 수 있고, 바깥쪽에서는 한 위치 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로 표시)이 다시 세분될 수 있음을 표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확장형에서는 기준사각형 안쪽 33위치와 34위치 사이에 33~34위치가 변별되거나 바깥쪽 35위치 안에서 좀 더 멀리 떨어진 +35위치가 변별될 수 있다.

그리고 구결점의 형태는 ‘()’안에 표시한다. 예를 들어 33위치의 단점은 ‘33(·)’으로 기록하고, 34~44위치에 놓인 사선은 ‘34~44(/)’으로 기록하고, +35위치의 역사향쌍점은 ‘+35(·)’으로 기록하게 된다.

실제 자료에 기입된 점토를 해독한 결과는 구결점이 어느 위치에 놓일 때 어떻게 읽히는지를 구결자로 표시하여 그림으로 나타내는데, 이를 점도(點圖)라 부른다. 같은 위치에 놓여도 구결점의 형태가 다르면 다르게 읽히기 때문에 점도는 형태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이러한 점도는 점토구결의 기입자와 해독자가 공유하는 구결점의 지도(地圖)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유가 계통 자료는 『유가사지론』 다섯 권과 『금광명경』 한 권이 연구되었다.²⁾ 『유가사지론』의 점도는 권차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는 반면 『금광명경』의 점도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화엄 계통 자료는 주본 『화엄경』 여섯 권과 진본 『화엄경』 한 권이 연구되

* [붙임2]는 곧 발간 예정인 『학문연구의 동향과 쟁점』 14집(대한민국학술원)에 실릴 글의 일부이다.

1) 이 글에서는 『유가사지론』과 『금강명경』을 아울러 ‘유가 계통’으로 부르고, 주본 『화엄경』(80권본, 약칭 ‘주본’)과 지본 『화엄경』(60권본, 약칭 ‘지본’)을 아울러 ‘화엄 계통’으로 부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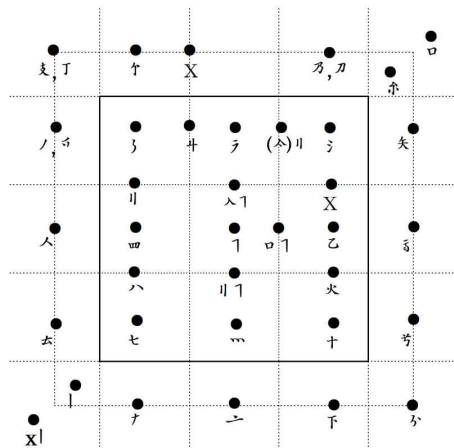
2) 『유가사지론』은 호림본 권3, 성암본 권5, 성암본 권8, 남선사본 권8, 한글박물관본 권66이 해당하고 『금광명경』은 천주교인쇄박물관본 권3이 해당한다.

었다.3) 주본 『화엄경』의 점도는 권차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는 반면 진본 『화엄경』의 점도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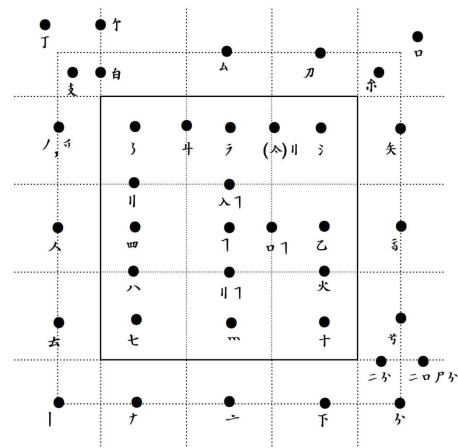
이하에서는 그동안 축적되어 온 점토석독구결 해독의 성과가 집약된 최신 점도를 구결점의 형태별로 소개하고 특징적인 면을 기술해 보기로 한다.4)

(1) 단점의 해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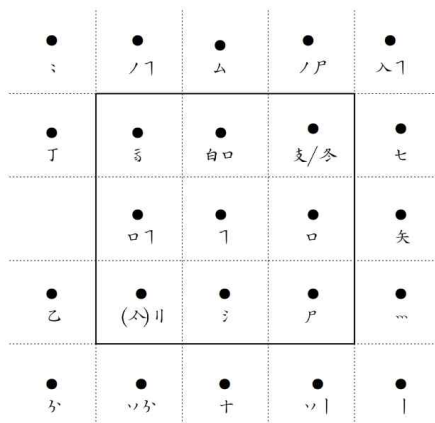
- 모양의 구결점을 단점이라 부르고, 단점을 해독한 점도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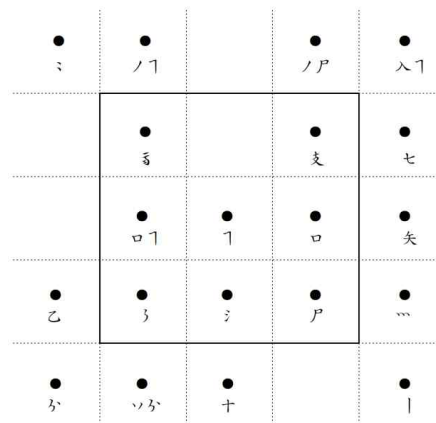
[그림 4] 『유가사지론』 단점 점도



[그림 5] 『금광명경』 단점 점도



[그림 6] 주본 『화엄경』 단점 점도



[그림 7] 진본 『화엄경』 단점 점도

단점은 점토를 구성하는 구결점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이다. 사용 빈도가 매우 높고 나머지 다른 형태의 음가 결정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특히 유가 계통에서는 무표적인 단점의 음가(β)가 같은 위치에 놓이는 단점 이외 형태의 음가($\alpha + \beta$)의 후반부를 규정하되 형태 정보가

3) 주본 『화엄경』은 성암본 권6, 성암본 권22, 호림본 권31, 호림본 권34, 성암본 권36, 성암본 권57이 해당하고 진본 『화엄경』은 성암본 권20이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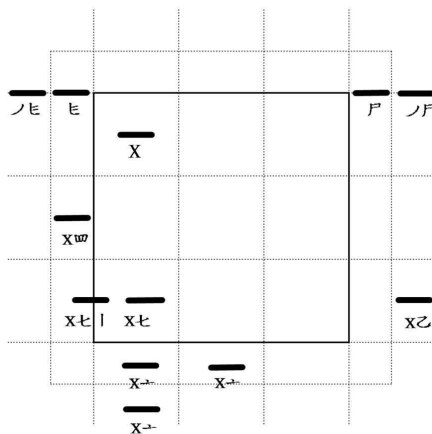
4) 유가 계통의 점도는 장경준(2023)에 제시된 것을 바탕으로 하되 문현수(2019), 이강혁(2022)를 참고하여 일부 수정하였고, 화엄 계통의 점도는 문현수(2022)에 제시된 것을 바탕으로 일부 수정한 것이다.

유가 계통의 역사선은 동일한 위치의 25(\)이 『유가사지론』에서 ‘ノ 1 矢’로 해독되고 『금광명경』에서 ‘ナ尸’로 달리 해독되는 것 외에는 두 점도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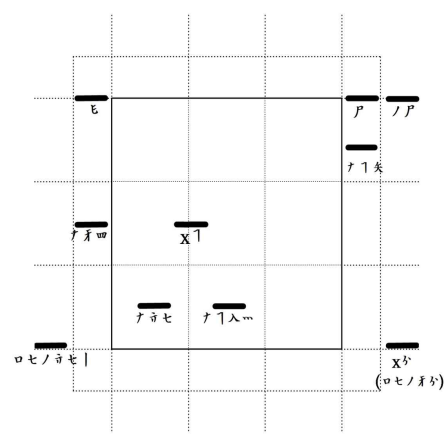
반면 화엄 계통에서는 같은 위치에서 주본 『화엄경』과 진본 『화엄경』의 해독이 일치하는 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역사선 형태에 한정하여 말하면 주본 『화엄경』과 진본 『화엄경』은 같은 계통 내에서 거리가 아주 먼 관계라고 할 수 있다.

(4) 수평선의 해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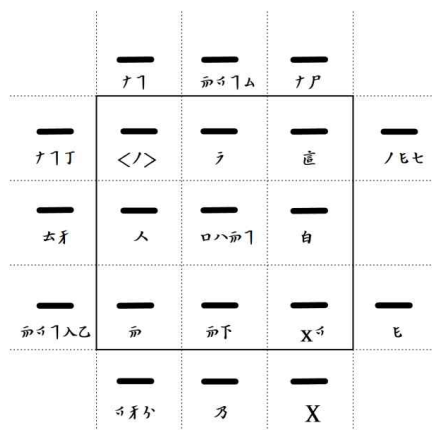
— 모양의 구결점을 수평선이라 부르고, 수평선을 해독한 점도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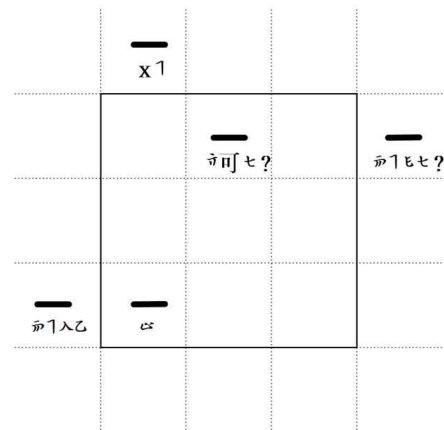
[그림 16] 『유가사지론』 수평선 점도



[그림 17] 『금광명경』 수평선 점도



[그림 18] 주본 『화엄경』 수평선 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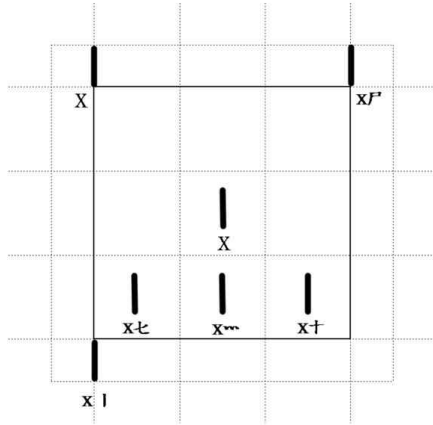
[그림 19] 진본 『화엄경』 수평선 점도

유가 계통의 수평선은 같은 위치에서 『유가사지론』에 미해독(x)으로 표시한 부분이 『금광명경』에서 특정 구결자로 반영된 부분이 많아 해독에 주요 단서가 될 수 있고, 두 자료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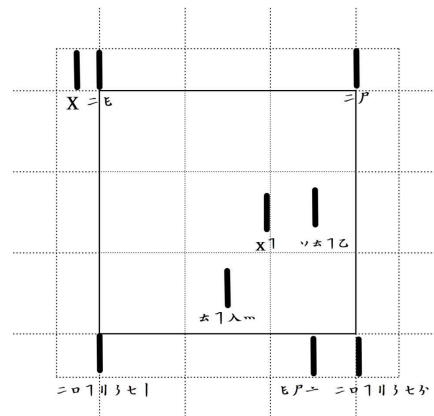
화엄 계통의 수평선은 주본 『화엄경』의 점도가 빈 칸이 거의 없는 반면 진본 『화엄경』에서는 무려 21군데의 빈 칸이 있어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진본 『화엄경』의 점토 체계에서 수평선의 기능부담량이 현저히 낮았던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

(5) 수직선의 해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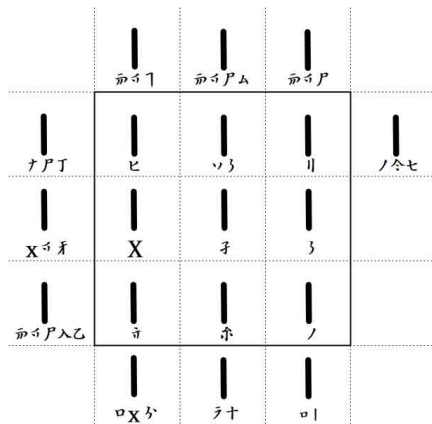
모양의 구결점을 수직선이라 부르고, 수직선을 해독한 점도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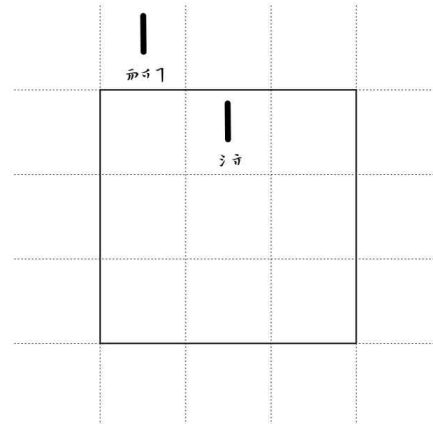
[그림 20] 『유가사지론』 수직선 점도



[그림 21] 『금광명경』 수직선 점도



[그림 22] 주본 『화엄경』 수직선 점도



[그림 23] 진본 『화엄경』 수직선 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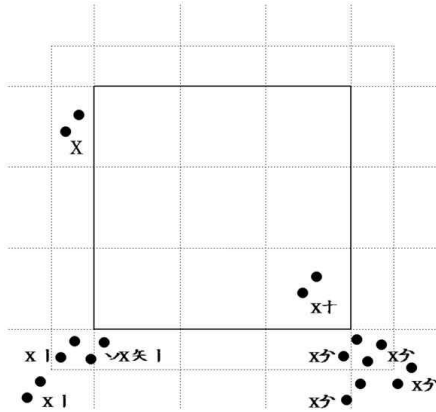
수직선은 수평선과 비슷한 양상이 관찰된다. 유가 계통의 경우 같은 위치에서 『유가사지론』 점도에 미해독(x)으로 표시한 부분이 『금광명경』 점도에서 특정 구결자로 반영된 부분이 많아 해독에 주요 단서가 될 수 있고, 두 자료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화엄 계통의 수직선은 주본 『화엄경』의 점도가 빈 칸이 매우 적은 반면, 진본 『화엄경』에서는 단지 2군데에서만 관찰되어 수직선의 사용이 극히 제한적이다. 12위치는 해독이 일치하지만 23위치의 해독 결과가 ‘二 尸’ (주본)와 ‘二 尸’ (진본)으로 전혀 다른 것도 주본 『화엄경』과 진본 『화엄경』 사이의 이질적인 모습을 잘 보여준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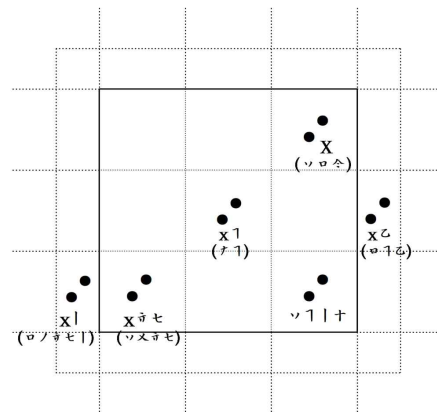
7) 진본 『화엄경』에서 ‘二 尸’로 해독되는 구결점은 42(\\)이고, 주본 『화엄경』에서 ‘二 尸’으로 해독되는 구결점은 없다. 다만, 주본 『화엄경』에서는 ‘二’로 해독되는 43(·)과 ‘尸’로 해독되는 42(l)을 조합하여 ‘二 尸’을 표기하였다.

(6) 사향쌍점의 해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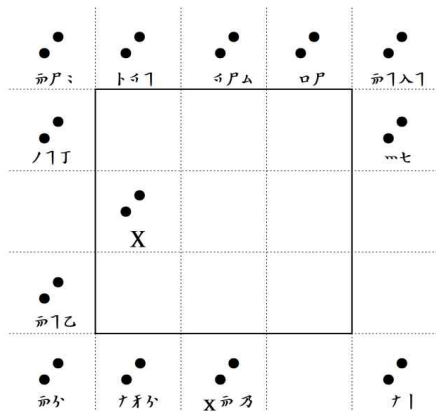
- 모양의 구결점을 사향쌍점이라 부르고,⁸⁾ 사향쌍점을 해독한 점도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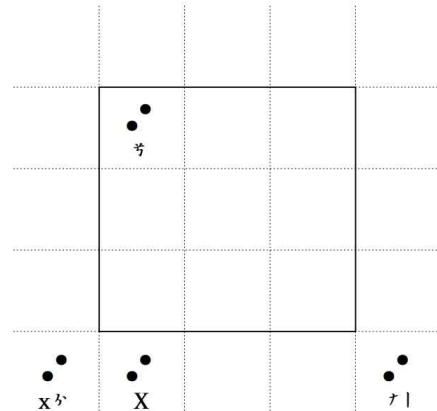
[그림 24] 『유가사지론』 사향쌍점 점도



[그림 25] 『금광명경』 사향쌍점 점도



[그림 26] 주본 『화엄경』 사향쌍점 점도



[그림 27] 진본 『화엄경』 사향쌍점 점도

유가 계통의 사향쌍점은 『유가사지론』이 기준사각형의 바깥, 특히 아래쪽에 있는 51과 55 위치 주변에 몰려 있는 반면 『금광명경』은 주로 기준사각형의 안쪽에 놓인다. 이러한 분포의 차이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는 알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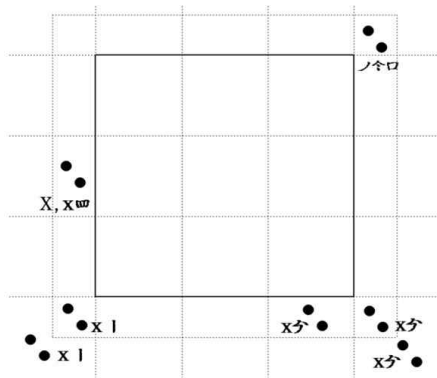
화엄 계통의 사향쌍점도 주본 『화엄경』과 진본 『화엄경』의 분포상의 차이가 크다. 상대적으로 진본 『화엄경』의 분포가 더 제약적인데, 그 의미에 대해서는 역시 알기 어렵다.

(7) 역사향쌍점의 해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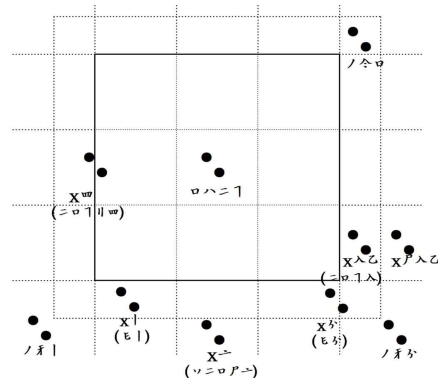
- 모양의 구결점을 역사향쌍점이라 부르고,⁹⁾ 역사향쌍점을 해독한 점도는 아래와 같다.

8) '사향'은 '사선 방향'의 줄임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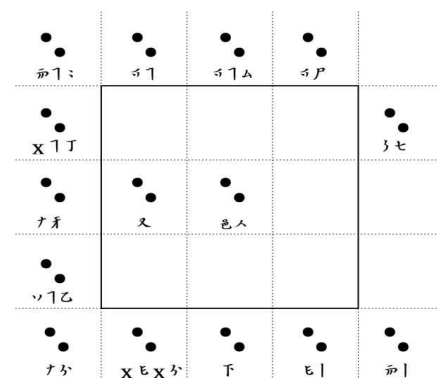
9) '역사향'은 '역사선 방향'의 줄임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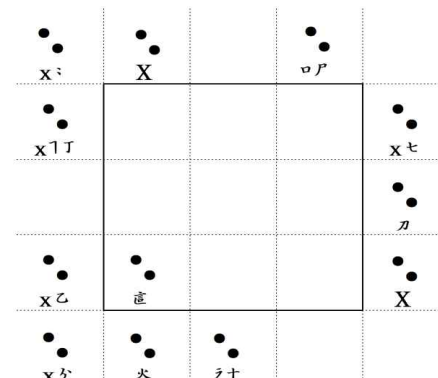
[그림 28] 『유가사지론』 역사향쌍점 점도



[그림 29] 『금광명경』 역사향쌍점 점도



[그림 30] 주본 『화엄경』 역사향쌍점 점도



[그림 31] 진본 『화엄경』 역사향쌍점 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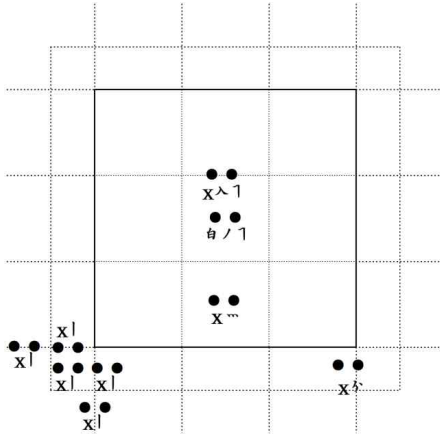
유가 계통의 역사향쌍점은 사향쌍점과 마찬가지로 기입된 위치가 아래쪽에 몰려 있는 편이다. 『금광명경』에 기입된 자토구결이 점토의 해독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나 ‘노소로’, ‘노야ㅣ’, ‘노야까’에 각각 대응되는 15, 51, 55위치를 제외하면 출현 빈도가 적어 해독안을 확정하기 어렵다.

화엄 계통의 역사향쌍점은 주본 『화엄경』과 진본 『화엄경』의 점도가¹⁰⁾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만 52위치(주본 ‘x ㄷ x ㄴ’, 진본 ‘火’)¹¹⁾나 53위치(주본 ‘ㄱ’, 진본 ‘ㄴ +’)¹²⁾처럼 동일 위치의 해독안이 명백히 불일치하는 사례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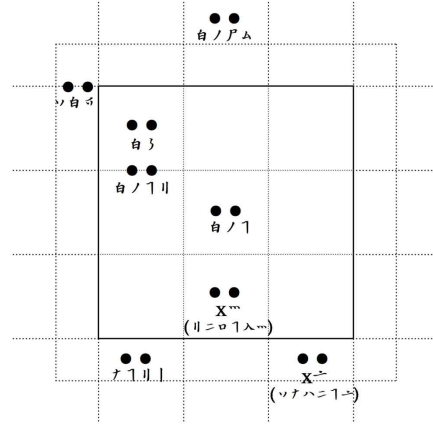
(8) 수평쌍점의 해독

- 모양의 구결점을 수평쌍점이라 부르고, 수평쌍점을 해독한 점도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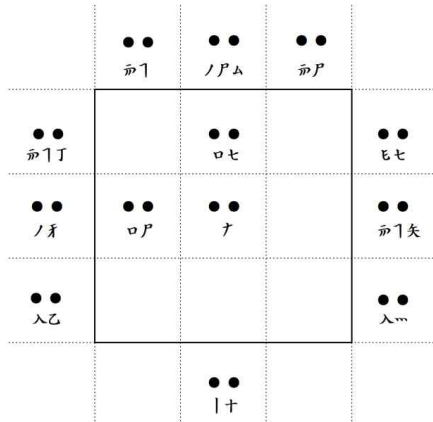
- 10) 진본 『화엄경』의 12위치에 표시된 것은 이승재 외(2009)의 판독안에 11(·)로 표시된 두 사례 중 하나의 위치를 달리 해석하여 반영한 것이다. 한편 문현수(2022)의 점도에 11(·)가 표시되지 않은 것은 데이터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오류다.
- 11) 진본 『화엄경』에서 ‘x ㄷ x ㄴ’로 해독되는 구결점은 없고, 주본 『화엄경』에서 ‘火’으로 해독되는 구결점은 21(·)이다. 다만, 진본 『화엄경』 점도에서 51(·), 51(·), 51(·)에 대한 해독안이 모두 ‘x ㄴ’로 되어 있어서 이 중에 주본 『화엄경』의 52(·)에 대응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 12) 진본 『화엄경』에서 ‘ㄱ’로 해독되는 구결점은 없고, 주본 『화엄경』에서 ‘ㄴ +’로 해독되는 구결점은 53(·)이다. 참고로 주본 『화엄경』에서 ‘ㄱ’로 해독되는 53(·)도 출현빈도가 단 1회에 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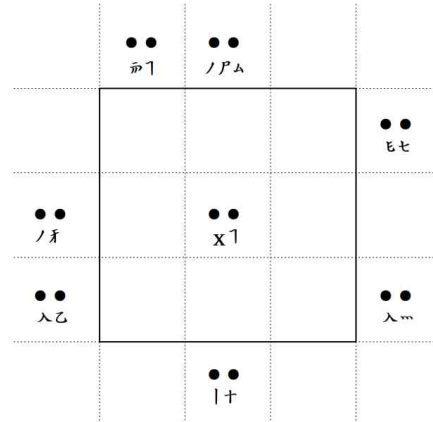
[그림 32] 『유가사지론』 수평쌍점 점도



[그림 33] 『금광명경』 수평쌍점 점도



[그림 34] 주본 『화엄경』 수평쌍점 점도



[그림 35] 진본 『화엄경』 수평쌍점 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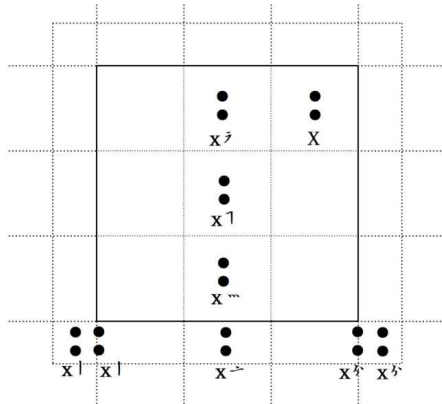
유가 계통의 수평쌍점은 전반적으로 분포 위치가 성기고 『유가사지론』과 『금광명경』에서 겹치지 않는 자리가 많은 편이다. 기준사각형의 가운데부터 위쪽에 놓이는 자리에서는 공통적으로 ‘ㅅ’[습]이 포함되어 있는 점이 주목을 끈다. 54위치 안에서 상대적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친 『유가사지론』은 ‘~ㅅ’로 대응되고 그렇지 않은 『금광명경』은 ‘~ㅅ’로 대응되는 점도 특징적이다.

화엄 계통의 수평쌍점은 진본 『화엄경』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적고 33위치에서 해독이 달라지는(주본 ‘ㅅ’, 진본 ‘x1’)¹³⁾ 점을 제외하면 주본 『화엄경』과 진본 『화엄경』의 점도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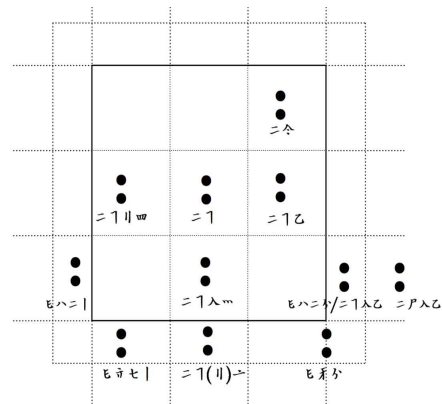
(9) 수직쌍점의 해독

● 모양의 구결점을 수직쌍점이라 부르고, 수직쌍점을 해독한 점도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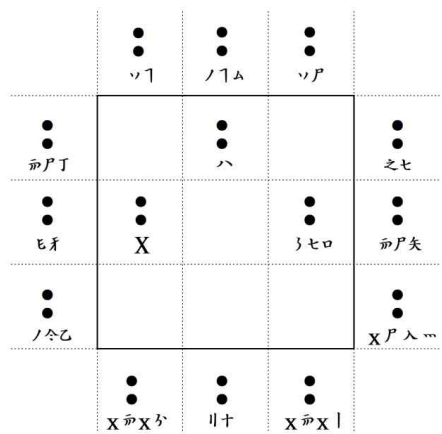
13) 진본 『화엄경』에서 ‘ㅅ’로 해독되는 구결점은 없고, 주본 『화엄경』에서 ‘x1’으로 해독되는 구결점은 12(ㅣ)이다. 참고로 진본 『화엄경』 점도에서 ‘ㅅ’를 포함한 것으로는 ‘ㅅㅅㅅㅣ?’로 해독되는 45(/)과 ‘ㅅㅣ’로 해독되는 45(·)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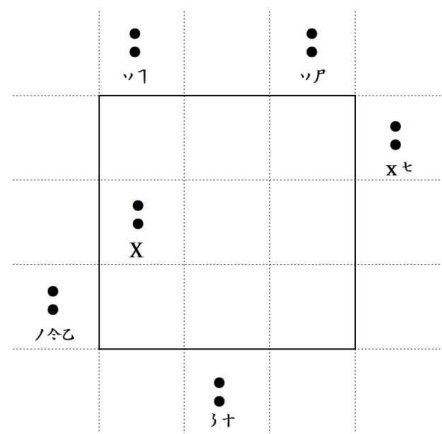
[그림 36] 『유가사지론』 수직쌍점 점도



[그림 37] 『금광명경』 수직쌍점 점도



[그림 38] 주본 『화엄경』 수직쌍점 점도



[그림 39] 진본 『화엄경』 수직쌍점 점도

유가 계통의 수직쌍점은 『금광명경』의 점도에서 대체로 ‘(1)’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아래쪽에 있는 41, 45, 52, 54~55위치에서는 ‘ㄷ’와도 관련이 있는 듯한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역시 대응되는 자토구결의 존재이다. 『유가사지론』에서도 미해독(x)으로 표시한 부분의 해결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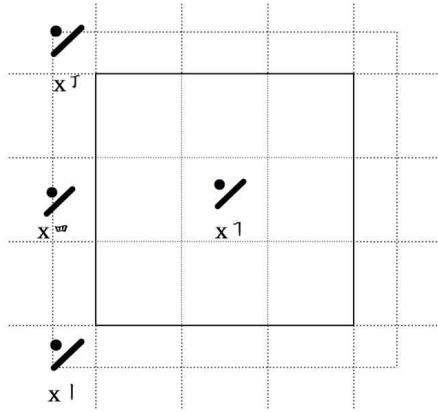
화엄 계통의 수직쌍점은 진본 『화엄경』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적고, 위치가 겹치는 자리에서는 주본 『화엄경』과 진본 『화엄경』의 해독안에 큰 차이가 없다.

(10) 눈썹의 해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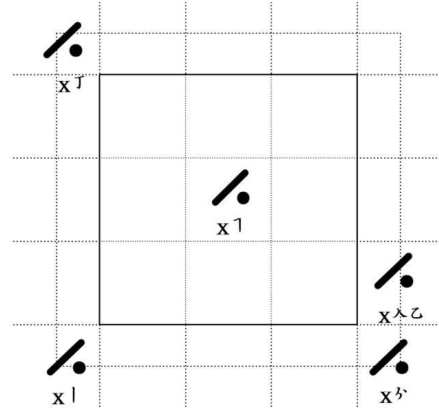
선과 그 선의 위나 아래에 점이 놓이는 모양의 구결점을 눈썹이라 부른다. 눈썹은 선의 방향과 점의 위치에 따라 구분되며 ‘사선오눈썹’(ㄱ), ‘사선우눈썹’(ㄴ), ‘역사선오눈썹’(ㄷ), ‘역사선우눈썹’(ㄹ), ‘오눈썹’(ㅁ), ‘우눈썹’(ㅂ), ‘어눈썹’(ㅅ), ‘아눈썹’(ㅇ), ‘오우눈썹’(ㅈ) 등이 사용되

14) 이강혁(2022)은 『유가사지론』과 『금광명경』의 점도가 동일하다는 전제 아래 두 자료의 데이터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수직쌍점의 해독안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한 장경준(2023)의 점도를 반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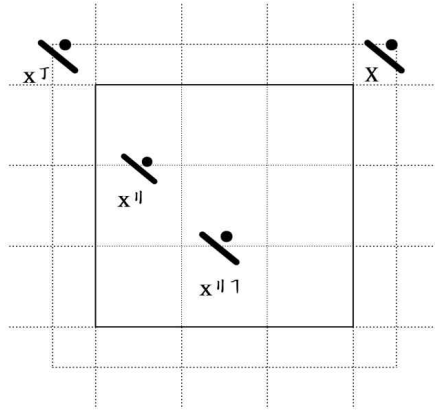
었다.¹⁵⁾ 눈썰을 해독한 점도는 아래와 같다.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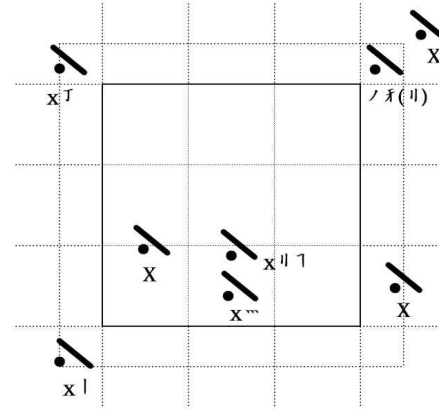
[그림 40] 『유가사지론』 눈썰 점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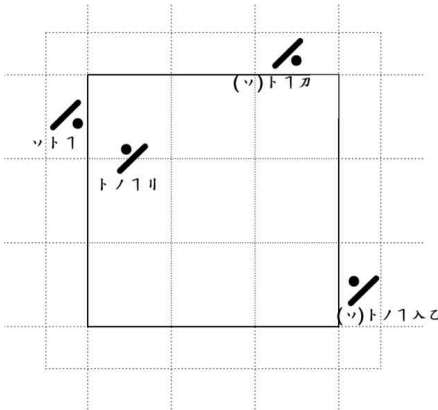
[그림 41] 『유가사지론』 눈썰 점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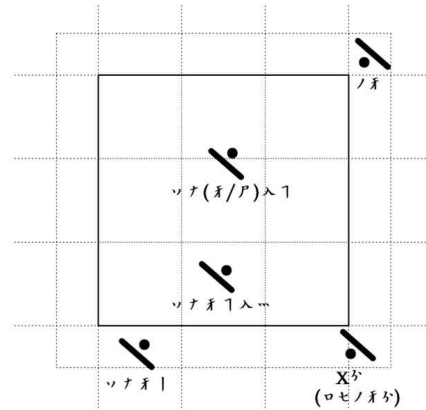
[그림 42] 『유가사지론』 눈썰 점도(3)



[그림 43] 『유가사지론』 눈썰 점도(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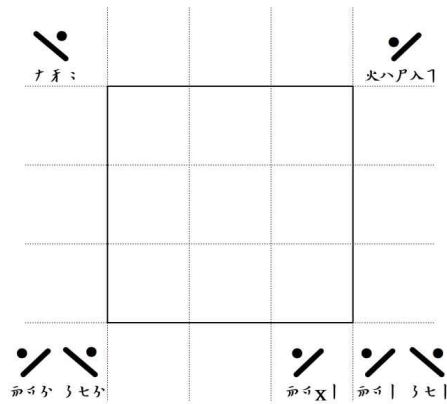
[그림 44] 『금광명경』 눈썰 점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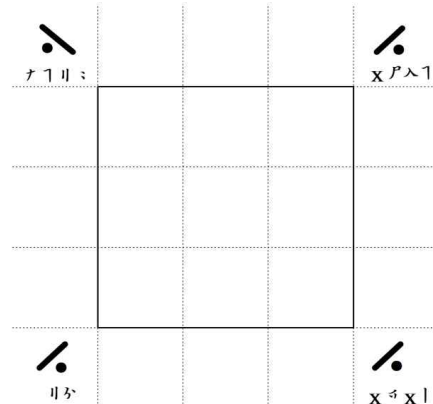
[그림 45] 『금광명경』 눈썰 점도(2)

15) 구결점의 형태 중 ‘ㄷ, ㅁ, ㅣ, ㅅ, ㅈ, ㅁ, ㅁ’는 흥미롭게도 훈민정음의 중성자와 일치한다. 하지만 이들 구결점과 훈민정음 중성자 간에는 형태상의 유사성을 제외하고 유의미한 대응 관계가 발견되지 않으며,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점토석독구결을 참고하였는지 여부도 알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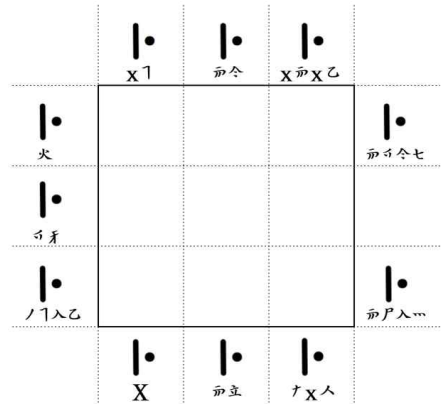
16) 눈썰과 느낌표의 화엄 계통 점도에서 한 칸에 두 개의 형태를 표시한 것은 지면 관계상 점도의 개수를 줄이기 위해 편의상 함께 넣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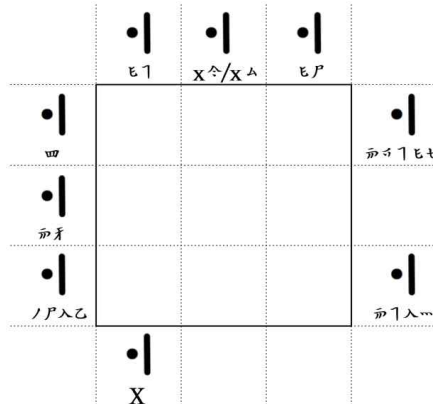
[그림 46] 주본 『화엄경』 눈썹 점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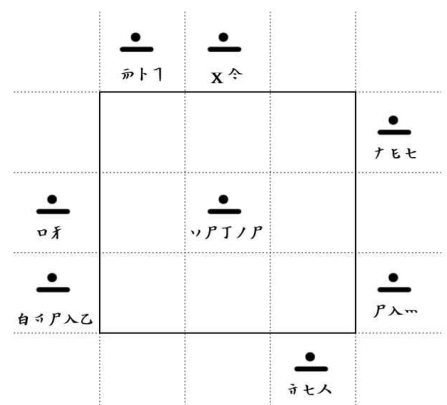
[그림 47] 주본 『화엄경』 눈썹 점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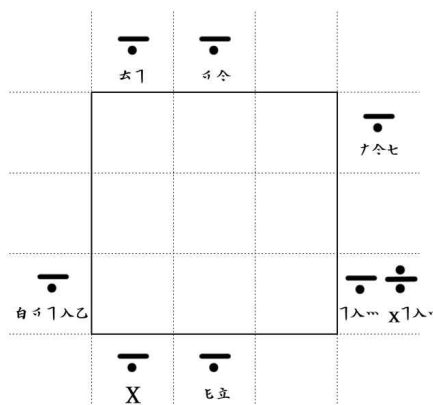
[그림 48] 주본 『화엄경』 눈썹 점도(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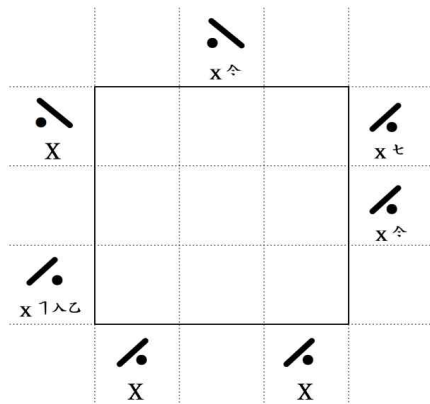
[그림 49] 주본 『화엄경』 눈썹 점도(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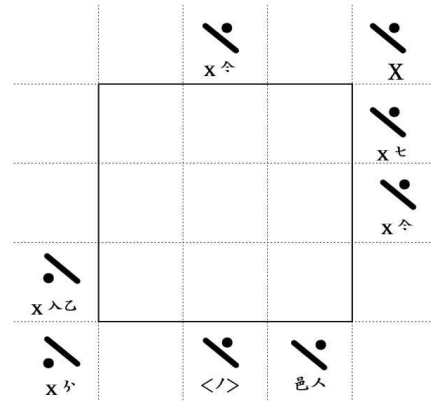
[그림 50] 주본 『화엄경』 눈썹 점도(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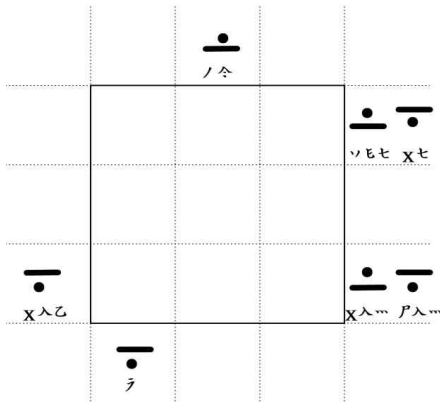
[그림 51] 주본 『화엄경』 눈썹 점도(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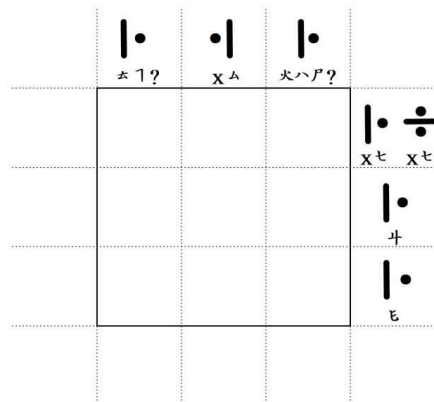
[그림 52] 진본 『화엄경』 눈썹 점도(1)



[그림 53] 진본 『화엄경』 눈썹 점도(2)



[그림 54] 진본 『화엄경』 눈썹 점도(3)



[그림 55] 진본 『화엄경』 눈썹 점도(4)

유가 계통의 눈썹은 사선이나 역사선을 포함한 형태만 사용되었다. 『유가사지론』과 『금광명경』 점도에서 동일 위치에 동일 형태가 사용된 사례가 드물고 출현 빈도도 매우 낮아 『금광명경』에 기입된 자토구결 외에는 해독의 단서를 찾기가 쉽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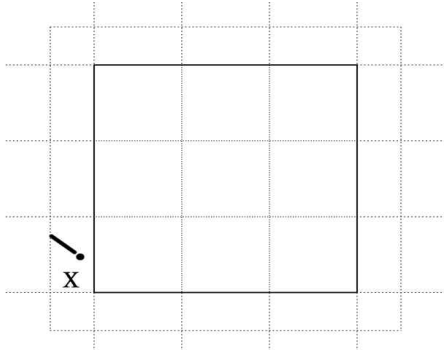
화엄 계통의 눈썹은 유가 계통과 달리 사선이나 역사선뿐만 아니라 수평선, 수직선을 포함한 형태도 널리 사용되었고, 거의 대부분 기준사각형의 바깥에 분포되어 있다. 주본 『화엄경』과 진본 『화엄경』의 점도에서 위치와 형태가 동일한 구결점이 많지 않은데, 그런 경우라도 특히 진본 『화엄경』의 경우 ‘x’로 표시된 미해독 부분이 많고 45(1·)에서는 ‘ $\text{ㄴ} \text{尸} \text{乙}$ ’(주본)와 ‘ ㄴ ’(진본)로 달리 해독되어¹⁷⁾ 이들 사이의 체계적인 대응 양상은 파악하기 어렵다.

(11) 느낌표 및 말발굽의 해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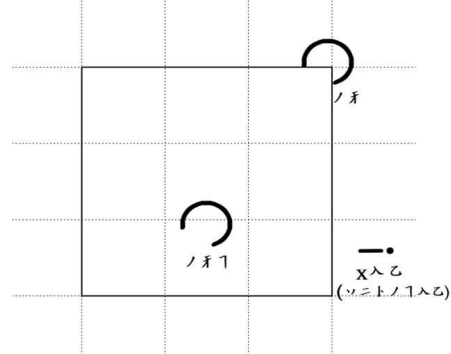
선과 그 선의 한쪽 끝에 점이 가까이 붙어 있는 모양의 구결점을 느낌표라 부른다. 느낌표는 눈썹과 마찬가지로 선과 점의 방향과 위치에 따라 구분되고 ‘ ／ ’, ‘ ／ ’, ‘ ／ ’, ‘ ／ ’, ‘ ／ ’, ‘ ／ ’, ‘ ／ ’, ‘ ／ ’ 등이 사용되었는데, 개별 형태에 대한 이름은 아직 보편화된 것이 없다. 한편 직선을 이용

17) 진본 『화엄경』에서 ‘ $\text{ㄴ} \text{尸} \text{乙}$ ’로 해독되는 구결점은 없고, 주본 『화엄경』에서 ‘ ㄴ ’로 해독되는 구결점은 45(-)이다. 다만, (문증되지는 않았으나) 진본 『화엄경』에서는 ‘ $\text{ㄴ} \text{尸}$ ’로 해독되는 14(·)과 ‘ 乙 ’로 해독되는 45(·)을 조합하여 ‘ $\text{ㄴ} \text{尸} \text{乙}$ ’를 표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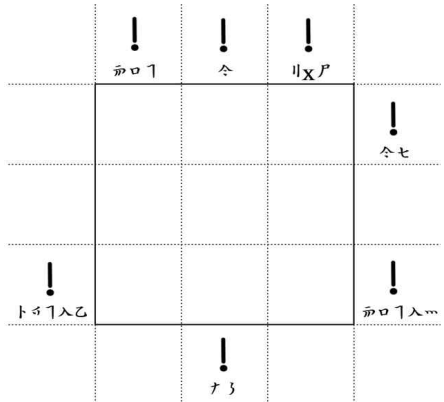
하는 다른 구결점들과 달리 ‘ㄱ’ 모양의 곡선이 쓰이기도 했는데, 이것은 편의상 말발굽이라 부른다. 눈썹 및 말발굽을 해독한 점도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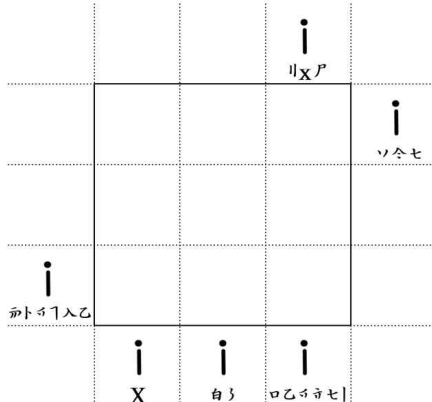
[그림 56] 『유가사지론』 느낌표 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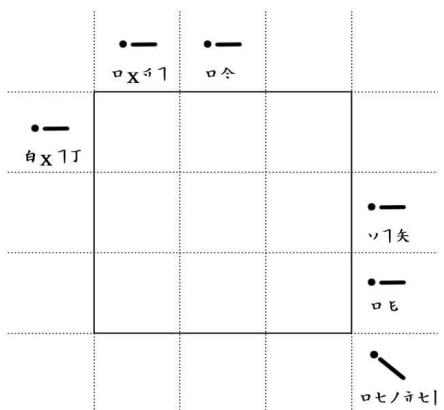
[그림 57] 『금광명경』 느낌표, 말발굽 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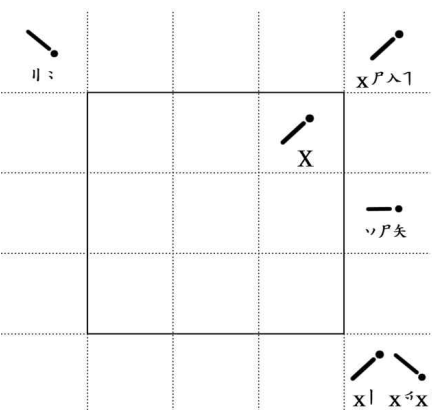
[그림 58] 주본 『화엄경』 느낌표 점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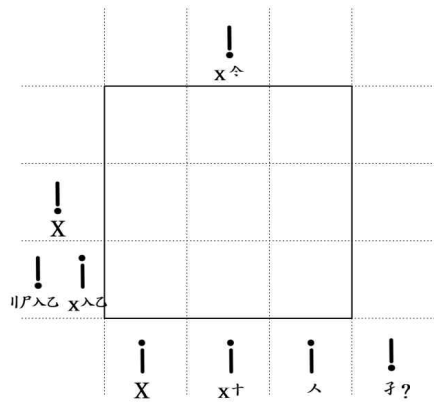
[그림 59] 주본 『화엄경』 느낌표 점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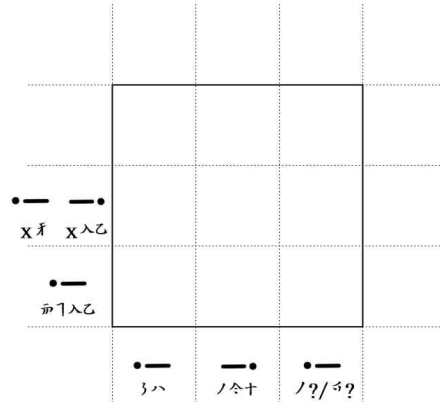
[그림 60] 주본 『화엄경』 느낌표 점도(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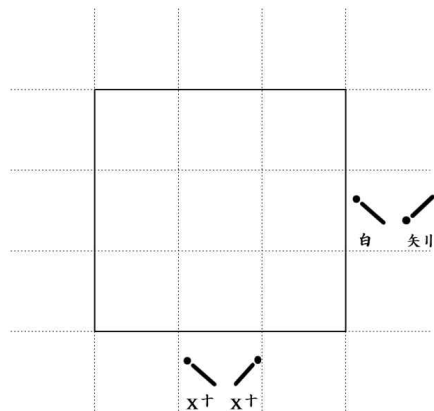
[그림 61] 주본 『화엄경』 느낌표 점도(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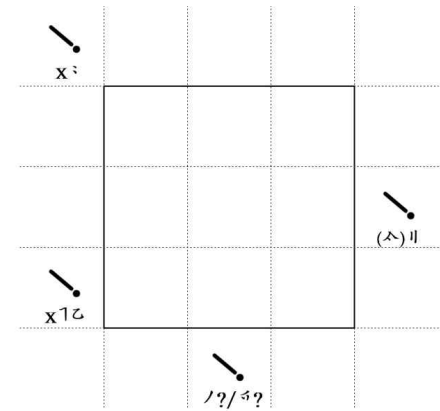
[그림 62] 진본 『화엄경』 느낌표 점도(1)



[그림 63] 진본 『화엄경』 느낌표 점도(2)



[그림 64] 진본 『화엄경』 느낌표 점도(3)



[그림 65] 진본 『화엄경』 느낌표 점도(4)

유가 계통에서는 느낌표 형태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유가사지론』과 『금광명경』에 각각 41(\.)과 45(-.)의 유일례가 있을 뿐이다. 반면에 화엄 계통은 유가 계통에 비해 훨씬 다양한 형태의 느낌표가 사용되었는데, 눈썹 형태와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 기준사각형의 바깥에 위치한다. 주본 『화엄경』과 진본 『화엄경』의 점도에서 위치와 형태가 동일한 경우가 많지 않고, 그런 경우라도 41(!)가 ‘ㅈ ㅈ ㅈ ㅈ ㅈ’(주본)과 ‘ㅈ ㅈ ㅈ ㅈ’(진본)로 달리 해독되고¹⁸⁾ 53(i)가 ‘ㅈ ㅈ’(주본)과 ‘X+’(진본)로 달리 해독되는¹⁹⁾ 등 주본과 진본 사이의 체계적인 대응 양상은 파악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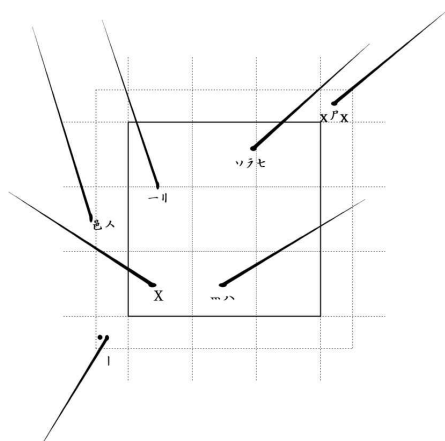
한편 『금광명경』에는 15위치와 33~43위치에 말발굽 모양의 매우 이질적인 형태가 사용되었는데, 오직 『금광명경』에서만 관찰되고 다른 점토석독구결 자료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15위치의 경우 ‘ㅈ ㅈ’로 해독되어 같은 위치의 역사선우눈썹(\.)과 해독안이 겹치는 모습도 보인다. 따라서 말발굽은 다른 구결점들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8) 진본 『화엄경』에서 ‘ㅈ ㅈ ㅈ ㅈ ㅈ’로 해독되는 구결점은 없고, 주본 『화엄경』에서 ‘ㅈ ㅈ ㅈ ㅈ ㅈ’로 해독되는 구결점은 없다. 다만, 진본 『화엄경』에서 41(i)나 31(-.)이 ‘X ㅈ ㅈ’로 해독되어 ‘ㅈ ㅈ ㅈ ㅈ ㅈ’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고, 주본 『화엄경』에서 ‘ㅈ ㅈ ㅈ ㅈ’을 포함한 구결점은 41위치가 유력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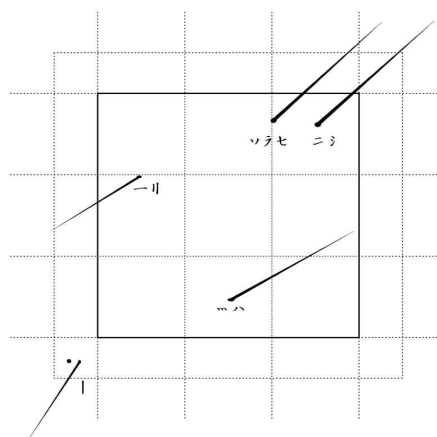
19) 진본 『화엄경』에서 ‘ㅈ ㅈ’로 해독되는 구결점은 없고, 주본 『화엄경』에서 ‘X+’로 해독되는 구결점은 없다. 다만, 진본 『화엄경』에서 35(\.)과 42(-.)이 각각 ‘ㅈ’과 ‘ㅈ’로 해독되어 이들을 조합하여 ‘ㅈ ㅈ’를 표기할 수 있고, 주본 『화엄경』에서 ‘+’를 포함한 구결점은 53위치가 유력하다고 할 수 있다.

(12) 빼침선의 해독

빼침선은 한 점에서 시작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뻗어나가다 점점 약해지는 긴 직선 모양을 하고 있어 점이나 짧은 직선으로 구성된 다른 대부분의 구결점과 이질적인 형태를 지닌다.²⁰⁾ 그래서 점토석독구결 연구 초기에는 이것을 기능을 알기 어려운 미지의 부호로 분류하였다가 안대현(2009)과 문현수(2014, 2021)에 의해 해독이 진전되어 15위치와 42위치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그 독법과 기능을 파악하게 되었다.



[그림 66] 『유가사지론』 빼침선 점도



[그림 67] 『금광명경』 빼침선 점도

빼침선은 구결점과 마찬가지로 해독 결과를 구결자로 표시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음소나 음소의 연쇄로 이루어진 일정한 언어 형식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유가 계통에서만 사용되었다. 화엄 계통의 자료도 빼침선과 같은 모양의 선이 기입된 것이 있지만, 이것은 동일한 구결점이 두 번 기입되었음을 표시하는 부호인 ‘중복선’(의 일부)이지 구결점의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장경준 2008). 따라서 빼침선은 자료에 따라 구결점과 부호의 경계를 넘나드는 형태로서 유가 계통과 화엄 계통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안대현(2009), 『유가사지론』 점토구결의 빼침선에 대하여, 『구결연구』 22.
- 문현수(2014), 『유가사지론』 계통 점토석독구결에 사용된 빼침선의 기능, 『구결연구』 33.
- 문현수(2019), 『유가사지론 점토구결의 수평쌍점에 대한 연구』, 『반교어문』 51.
- 문현수(2021), 『점토석독구결 『합부금광명경』 권3에 사용된 빼침선 연구』, 『국어사연구』 33.
- 문현수(2022), 『『화엄경』 점토석독구결 점도의 발달 과정에 대하여』, 『국어학』 101.
- 이강혁(2022), 『『유가사지론』 계통 점토석독구결 수직쌍점 해독에 대한 시론』, 『국어학』 101.
- 이승재 외(2009), 『각필구결의 해독과 번역4 -진본 『화엄경』 권제20·주본 『화엄경』 권제22』, 태학사.
- 장경준(2008), 『고려초기 점토구결의 제부호』, 『한국어학』 40.
- 장경준(2017), 『『유가사지론』 점토구결의 몇 가지 특징』, 『구결연구』 38.
- 장경준(2020),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유가사지론』 권66의 점토석독구결과 『유가사지론』 권20의 자토석독구결의 관련성』, 『구결연구』 44.
- 장경준(2023), 『『합부금광명경』 권3의 점토구결 기초 연구』, 『구결연구』 51.

20) 예외적으로 『금광명경』의 22~32와 24위치에 곡선 모양으로 기입된 예도 있다(문현수 2021:247).